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11.



배 손 근

目 次

才一章 研究의 目的과 範圍	3
§ 1. 研究의 目的	3
§ 2. 研究의 範圍	7
才二章 資本主義體制와 社會主義體制	9
§ 1. 經濟體制的 四類型	9
§ 2. 兩體制的 基本的特徵	11
§ 3. 兩體制的 長點과 短點	14
才三章 兩體制的 接近可能性과 變態의 現況 및 展望	18
§ 1. 兩體制的 接近可能性에 關한 理論	18
(1) 經濟體制的 收斂論	18
(2) 收斂의 方向 —最適經濟體制—	27
§ 2. 兩體制的 變動의 現況	30
(1) 資本主義體制的 變動의 現況	30
(2) 共產主義體制的 變動의 現況	36
§ 3. 兩體制的 接近과 그 展望	46
(1) 接近하는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46
(2) 兩體制接近의 展望	51
才四章 南北韓經濟體制的 基本的特徵과 兩體制接近의 可能性	55
§ 1. 南北韓兩體制的 基本的特徵	55
(1) 南韓의 資本主義體制	55

(2) 北韓의 共產主義體制	60
§ 2. 南北兩體制的 接近可能性	63
(1) 兩體制的 接近可能性	63
(2) 兩體制接近의 長期的方向 및 展望	66
—— 混合經濟體制的 福祉國家 ——	
才五章 兩體制接近에 의 길	71
—— 統一福祉社會에 의 길 ——	

第一章 研究의 目的과 範圍

§ 1. 研究의 目的

社會主義思想의 發源은 經濟的不平等에서 비롯한다. 그것은 失業과 貧困, 勞使對立 및 榨取, 獨占과 恐慌등 近代 自由民主主義와 結付된 資本主義體制의 非人間的인 矛盾을 克服하고, 政治的自由와 平等뿐만 아니라, 財產, 所得面의 經濟的自由와 平等을 保障하여 人間다운 存在과 삶을 確保하기 위한 現實的휴머니즘의 發露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近代社會主義는 資本主義體制의 矛盾을 認識하고, 그것을 修正, 또는 改革하려는 「이데올로기」로서 이것은 크게는 非「마르크스」的인 民主社會主義와 「마르크스」的社會主義의 두 갈래로 나누어 진다.

非「마르크스」的인 民主社會主義는 福祉國家를 理想으로 하여 資本主義體制의 漸進的改革을 基本路線으로 하는 議會民主主義的인 改良主義的社會主義이다. 그것은 「상·시몽」(Saint-Simon), 「오웬」(Robert Owen) 등의 空想性을 脫皮하여, 「리카르도」派社會主義者인 「톰슨」(William Thompson), 「호지스킨」(Thomas Hodgskin) 등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그후 「웹」夫妻(S.&B. Webb), 「버나드·쇼」(Bernard Shaw) 등을 中心으로 한 「페비안·協會」의 漸進的社會主義로 發展하여 現在의 英國·勞動黨의 民主社會主義로 發展·繼承되고 있다. 이러한 英國의 民主社會主義는 多分히

修正資本主義의 性格을 가진 것으로서, 「마르크스」主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民主主義의 方法에 의한 社會主義의 漸進的實現이라는 立場을 取하고 있어, 처음부터 民主的이며 自由로운 思想으로 一貫해 왔다.

그러나 이에 反하여, 「마르크스」의 社會主義는 共產主義國家를 理想으로 하여, 資本主義體制의 全面的否定과 體制改革을 基本路線으로 하는 急進的 社會主義이다.

이러한 「마르크스」主義는 첫째, 소련에서는 「마르크스·레닌」主義的 共產主義로 展開되었다. 「러시아」革命을 통해 나타난 「마르크스」主義는 「스탈린」主義的 一黨獨裁를 낳아 「마르크스」의 휴머니즘에 背馳되는結果가 되었다. 國有化와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는 生産手段의 名目的인 主人公인 國民에 대한 經濟支配의 道具로 되어 自由·平等·民主主義를 戲劇化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로 「마르크스」主義는 獨逸에서는 社會民主主義의 形態로 展開되었다. 社會民主主義와 共產主義는 어느 것이나 「마르크스」主義를 信條로 하는 點에서는 差異가 없다. 다만 그 實踐運動에 있어서 社會民主主義는 政治權力의 移行이 共產主義처럼 少數者의 武裝봉기에 의한 暴力革命이 아니라, 議會民主主義의 方法을 통해서 平和的·合理的으로 達成하려는 點에 差異가 있다. 이러한 背景에서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의 修正主義가 主張되었으며, 마침내는 獨逸社會民主主義가 「마르크스」主義「이데올로기」위에서 生成發展했으나 二次大戰後 그 性格上에 一大轉換이 일어났다.

즉 1959年, 「바트·고데스벨크」(Bad Godesberg)綱領에서 「마르크스」主義의 色採를 一掃하고 民主社會主義로 方向轉換을 斷行했던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主義를 떠난 獨逸社會民主主義와 英國式 民主社會主義사이에는 理念的對立이 解消되고 同質化되게 되었다.

세째로 「마르크스」主義는 「유고」에서는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의 形態로 나타나서, 農業에 있어서의 私有制를 認定하고 勞動者自治管理, 利潤自由廻分, 貿易 및 經濟活動의 廣範한 自由化등으로 소련과는 크게 다른 形態로 展開되었던 것이다.

네째로 「마르크스」主義는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共産黨에 의해 構造改革派(New left)의 形態로 나타났다. 傳統的인 最大綱領主義(Old left)가 先革命, 後改革의 路線을 取하여 온데 對해, 構造改革派는 共産主義革命前에도 資本主義制度의 構造下에서 共産黨의 議會進出을 통해 資本主義안에서부터 構造改革에 의해 社會主義方向으로 점차 改革하자는 것으로서 오늘날 資本主義諸國의 共産黨은 大部分이 路線을 取하고 있다.

그리고 다섯째로, 「마르크스」主義는 東歐 및 中共등에서는 人民民主主義의 形態로 展開되어, 勞動者, 農民만이 아니라 資本家·知識層등 全國民의 모든 階層이 參與하는 聯合政府를 우선 構成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資本家를 鈍化한다는 路線을 取해 왔던 것이다.

이와같이 이례올로기로서의 社會主義는 民主社會主義와 「마르크스」社會主義로 二大別되며, 「마르크스」主義도 그 古典的인 바탕을 超

越하여 各國의 歷史的 發展段階에 따라 各各 相異한 樣相으로 展開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特別 獨逸의 社會民主主義는 이미 「마르크스」主義의 이데올로기와 매별하고 民主社會主義로 方向轉換을 斷行하여 共產主義獨裁를 비롯한 모든 獨裁에 對決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以上과 같은, 이데올로기로서의 社會主義의 多樣한 變貌와 그 展開의 樣相은 結局에는 各國의 經濟體制의 現狀 및 變貌에도 各各 相異한 作用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 結果 體制變動의 樣相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 資本主義의 矛盾을 認識하면서도 長點을 살리고 그 短點을 修正하려는 이른바 「케인즈」的 修正資本主義나 新資本主義 (neo-capitalism)의 이데올로기도 各國에 따라 多樣한 變貌와 그 展開樣相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들도 結局에는 各國의 經濟體制의 現狀 및 變貌에 各各 相異한 作用을 미치게 되어, 그 結果 體制變動의 樣相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各國의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各國의 政治權力의 性格도 結局에는 그 나라의 經濟體制의 現狀 및 變動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經濟的 必要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및 政治權力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東西, 兩陣營의 經濟體制는 歷史의 進前과 더불어 그 古典的인 理論 바탕을 超越하여 相互 變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報告書는 國土統一院의 위촉에 의하여, 東西兩體制

의 相互 변모의 共通性 및 接近可能性을 考察하고, 나아가서 南北韓 兩体制의 相互接近可能性의 與否를 長期的인 側面에서 檢討함으로써 分斷된 韓半島의 統一을 뒷받침할 對北政策樹立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2. 研究의 範圍

南·北韓의 兩体制은 各各 工業化의 初期段階에 対応하는 後進資本主義体制과 後進社會主義体制이기 때문에, 아직 体制의 極限的인 矛盾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 先進工業化段階의 兩体制과 같은 커다란 變貌나 修正은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北韓의 경우에는 現實的으로 전혀 變貌나 修正의 움직임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先進工業化段階에 있는 兩体制의 變貌나 修正의 一般的 動向을 考察함으로써, 그 發展段階의 隔差가 解消되어 감에 따라 必然的으로 變貌할 南北兩体制의 相互修正 및 接近을 豫斷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報告書의 主要分析對象으로서는 우선 才二章에서 資本主義体制과 社會主義体制의 基本的特徵과 그 長點 및 短點을 考察하였으며, 才三章에서는 兩体制의 接近可能性에 관한 理論과 兩体制의 變動의 現況 및 兩体制接近의 長期的 展望을 研究의 對象으로 하였다.

그리고 才四章에서는 南北韓의 兩體制의 基本的特徵과 兩體制接近의 可能性 및 그 長期的 展望을 다루었다.

끝으로 才五章에서는 福祉國家의 理念과 統一福祉社會에의 體制改革을 研究對象으로 다루도록 하였다.

第二章 資本主義體制와 社會主義體制

§ 1. 經濟體制的 四類型

經濟體制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資源配分形態와 生産手段의 所有形態에 따라 4가지 類型으로 分類된다.

먼저 資源配分形態에 관한 經濟機構를 基準으로 해서 「市場經濟體制」와 「命令(計劃)經濟體制」로 나누인다. 市場經濟體制는 市場價格機構(Price mechanism)에 의해 資源配分の 需給均衡이 調整되는 經濟體制이고 命令經濟體制는 中央計劃當局의 命令 즉 計劃機構에 의해 그 需給均衡이 調整되는 經濟體制이다. 前者는 分權的인 自由經濟體制이고, 後者는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體制이다.

다음에 또 經濟體制는 生産手段의 支配的인 所有形態를 基準으로 해서 「資本主義經濟體制」와 「社會主義經濟體制」로 나누인다.

資本主義經濟體制는 生産手段이 私有되고 있는 經濟體制이며, 社會主義經濟體制는 生産手段이 公有되고 있는 經濟體制이다.

따라서 以上の 두 가지 分類基準을 組合함으로써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資本主義的市場經濟體制 ②資本主義的計劃經濟體制 ③社會主義的市場經濟體制 ④社會主義的計劃經濟體制的 4가지 類型으로 分類할 수 있다.

《經濟体制의 四類型》

市場 所有 形態	市場 價格 機構	市 場 經 濟 体 制	命 令 (計 劃) 經 濟 体 制
私 有		資本主義的 市場經濟体制 (自由資本主義) ①	資本主義的 計劃經濟体制 (獨裁資本主義) ②
公 有		社會主義的 市場經濟体制 (自由社會主義) ③	社會主義的 計劃經濟体制 (獨裁社會主義) ④

①生産手段의 私有化와 市場經濟機構를 組合한 이른바 資本主義的 市場經濟体制은 分權的인 自由市場기능을 主로 하기 때문에 「自由資本主義」体制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오늘날 美國 및 日本을 비롯한 西歐諸國의 先進資本主義經濟体制은 이 類型에 屬한다.

②그리고 生産手段에 관해서는 私的所有를 容認하면서 그위에 命令經濟体制를 取하는 이른바 「資本主義的 計劃經濟体制」는 中央集權的 命令기능을 主로 하기 때문에 「獨裁資本主義」라 할 수 있다. 戰爭中의 나치스獨逸과 二次大戰中의 日本의 經濟体制가 이 類型에 屬한다.

③또 生産手段의 公有化와 市場의 기능을 組合한 「社會主義的 市場經濟体制」는 當然히 「自由社會主義体制」라 부를 수 있으며, 이는 「社會主義의 競爭的 system」으로 「競爭的 社會主義」또는 「分權的 社會主義」라고도 불리운다. 現在의 유고슬라비아의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는 이 類型에 屬한다. 또 1968年 前半의 소위 「프라하의 봄」을 謳歌했던 체코슬로바키아

의 自由社會主義體制에의 改革이 이 類型에 屬한다.

④끝으로 生産手段의 公有化와 中央集權的計劃經濟의 System을 結合한 「社會主義的計劃經濟體制」은 이른바 「獨裁社會主義」라 부를 수 있다. 現在의 소련을 비롯한 中共 및 東歐諸國의 共產主義經濟體制가 이 類型에 屬한다.

그러나 이 中에서 基本이 되는 類型은 ①이 資本主義的市場經濟體制와 ④의 社會主義的計劃經濟體制이다. 따라서 보통 資本主義體制나 社會主義體制라고 하면 이들 基本的인 두 體制 즉 自由資本主義와 獨裁社會主義를 意味한다.

§ 2. 兩體制의 基本的特徵

兩體制的 基本的 相違는 ①經濟機構 ②政治·社會機構 및 ③理念의 세가지 特徵에서 살펴 볼 수 있다.

(1) 資本主義體制的 基本的特徵

①資本主義經濟機構의 基本的特徵은 經濟機構의 組織面과 機能面에서 볼 수 있다.

i) 資本主義經濟機構의 組織面의 基本的 特徵으로서는 첫째, 所有形態에 관한 特徵으로 財產특히 物的生産手段이 私有化되고 있다는 點이다. 둘째는 資源配分形態에 관한 特徵으로서 經濟資源의 配分이나 各種經濟活動이 市場機構를 통해서 分權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點이다.

ii) 資本主義經濟機構의 機能面의 基本的 特徵은 첫째·經濟活

動的 目的이 私的利潤追求라는 點, 둘째 經濟活動의 結果로서 얻어지는 剩餘 (surplus)가 私的利潤으로서 私的資本의 所有者에게 歸屬되는 點, 셋째, 經濟發展을 위한 資本蓄積의 大部分이 그 私的利潤으로 부터 이루어진다는 點을 들 수 있다.

2)資本主義體制의 政治·社會機構에 관한 基本的特徵으로서는 各種의 政策決定 및 執行에 있어서 主導權을 장악하는 主体는 資本家階級이라는 點이다. 즉 資本主義體制의 바탕에서는 社會의 모든 方面에 걸쳐서 資本家階級の 權力이 支配的인 것이라 생각된다.

3)資本主義體制의 經濟 및 政治·社會理念에 관한 基本的特徵으로서는 自由主義와 個人主義 및 이를 위한 民主主義를 들 수 있다. 私有財產制度和 分權的인 市場經濟機構는 이와 같은 理念의 實現에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2) 社會主義體制의 基本的特徵

① 社會主義經濟機構의 基本的 特徵도 經濟機構의 組織面과 機能面에서 볼 수 있다.

i) 社會主義經濟機構의 組織面의 基本的 特徵으로서는 첫째, 所有形態에 관한 特徵으로서 物的生産手段이 公有化되고 있는 點, 둘째, 資源配分形態에 관한 特徵으로서 各種 經濟活動이 中央計劃當局의 計劃에 期하여 그 命令下에서 行하여 진다는 點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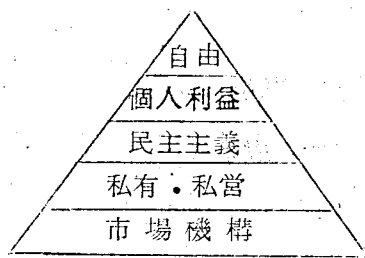
ii) 또 社會主義經濟機構의 機能面의 基本的 特徵으로는 첫째, 經濟活動의 目的은 私的利潤追求가 아니고 社會的利益的 追求라는 點, 둘째 經濟活動의 結果로서 얻어지는 剩餘가 社會的으로 領

有된다는 点, 세계, 經濟發展을 위한 資本蓄積이 社会的으로 領有된 剩餘로 부터 이루어 진다는 点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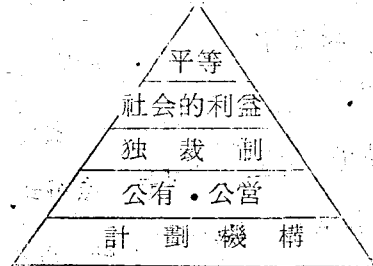
②다음에 社会主義体制의 政治·社会機構에 관한 基本的特徵은 各種 經濟政策의 決定 및 実行에 있어서 主導權을 장악하는 主体는 資本家階級이 아니고 勞動者階級이라는 点이다. 즉 Marx主義者에 의하면 資本主義体制下에서는 物的生産手段을 所有하는 資本家階級 (bourgeoisie) 과 無産의 勞動者階級 (proletariat) 이 對立·存在하고 前者가 政治權力을 장악하는 것에 의해서 後者를 支配하지만, 社会主義体制下에서는 反對로 勞動者階級이 支配權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高次의 단계인 共產主義体制에 접근함에 따라서 점차 階級自体가 死滅하는 形態로 階級對立이 消滅한다고 한다.

③그리고 또 社会主義体制의 經濟·政治·社会理念에 관한 基本的 特徵으로서는 平等主義와 全体主義 및 이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独裁主義를 들 수 있다. 物的生産手段의 公有制와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機構는 이와같은 理念의 實現에 必要한 制度라고 생각된다.

以上の 諸特徵을 간단하게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資本主義体制》



《社会主義体制》

§ 3. 兩体制의 長點과 短點

(1) 資本主義体制의 長點과 短點

資本主義体制에 대해서는 그 長點의 指摘 以上으로 批判이나 非難이 행해지는 것이 많다. 그러나 人類史上 처음으로 工業化가 행해져 物的生産力이 획기적으로 上昇된 것은 資本主義体制의 바탕에서였다. 이와같이 資本主義体制에는 物的生産力の 發展을 促進하는 長點이 있다는 것이 이해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資本主義体制의 長點은 自由市場機構의 存在에 由來하고 있다.

첫째로 市場機構는 각종의 財貨에 대한 需要와 供給을 自動적으로 一致시키는 機能을 有效하게 수행한다. 거기에는 資源의 效率的配分을 위한 指標로서 利潤과 自由價格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로 市場機構는 거기에 參加하는 모든 經濟主体에 대하여 差別없이 同等의 經濟的 諸機會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에 의해서 消費者選擇의 自由, 職業選擇의 自由, 企業活動의 自由등이 可能하게 되고 있다. 셋째로 市場機構아래에서의 自由競爭은 創意를 刺戟하고 革新과 進歩의 強力한 原動力으로 되고 있다.

私有財產制度의 존재는 이 경향을 助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資本主義体制은 이와같은 長點이 있지만, 다른 한편 많은 短點이 指摘되어 非難을 받고 있다. 資本主義体制의 첫째의 短點은 財產 및 所得의 分配가 不平等하게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社會主義發源의 思想的 根源으로서 Marx 기타 社會主義者에 의해

서 일찍부터 攻擊되어 왔다. 사실 19世紀 後半의 資本主義社會에서는 社會의 富者 少數의 資本家階級만에 集中되고 勞動者階級の 絶對的窮乏化가 促進되어 資本家階級과 勞動者階級과의 사이에 經濟的不平等이 深化・擴大되고 同時에 階級對立이 激化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不平等은 資本主義의 變모와 더불어 完化되고 있다.

4 世제의 短點은 生産의 社會의 性格과 所有의 私的 性格 때문에 強力하게 阻止되지 않는 限 經濟的 不安定과 不完全雇傭이 나타나기 쉽다는 點이다. 資本主義社會에서는 19世紀後半 以來 때때로 恐慌이 발생하고 더욱이 1929年의 世界大恐慌에서는 世界主要資本主義諸國이 놀라운 數字의 失業者를 발생시켜 심각한 危機에 直面했다. 그러나 그 後 公的部門의 增大나 經濟計劃의 發達을 배경으로 한 各種의 政策을 통하여 恐慌이나 失業을 회피하는 데 비교적 成功해 오고 있다. 그러나 現在에는 그것에 대신해서 Creeping inflation이나 이른바 Stagflation 등의 物價安定이 새로운 問題로 되고 있다.

世제의 短點은 넓은 의미의 社會資本에의 配慮가 不充分하다는 點이 指摘되고 있다. 資本主義體制下에서는 私企業이 利潤追求를 才一義的 目的으로 하여 經濟活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過程에서 社會全體에 있어서 중요한 物的 및 文化的 資産이 파괴되어 가는 點을 輕視하고 있다. 現在 注目되고 있는 自然環境의 파괴 및 各種의 公害問題는 資本主義體制에 있어서의 심각한 問題로 되고 있다.

(2) 社會主義體制의 長點과 短點

社會主義體制的 長點과 短點은 대체로 資本主義體制的 그것들과 表裏의 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社會主義體制的 첫째의 長點은 財產 및 所得分配의 不平等을 작게 하고 있다는 點이다. 物的生産手段의 公有制아래에서는 財產分配의 不平等은 생기지 않고, 따라서 所得의 不平等도 작게 된다.

둘째의 長點은 全般的인 國家計劃에 의해서 經濟的不安定 내지 不安全雇傭을 抑制할 수 있다는 點이다. 社會主義體制下에서는 中央當局에 의한 計劃經濟의 作成果 그것에 基礎한 各種의 統制나 調整을 통하여 극단적인 景氣循環의 發生을 防止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세째의 長點은 넓은 의미에서의 社會資本에의 配慮가 행해질 수 있다는 點이다. 社會主義體制下에서는 經濟活動의 目的이 直接으로 社會的利益의 追求와 結付되어 있기 때문에, 公害의 防止나 自然環境과괴에 관해서는 計劃의 作成에 앞서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對策을 세울 수가 있다.

以上과 같은 長點에 대해서 社會主義體制에 있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短點이 지적되고 있다.

社會主義體制的 첫째의 短點은 資源의 效率的配分을 促進하기 위한 適切한 指標가 없고 中央當局의 計劃에 의해서 政治적으로 決定되기 때문에 資源의 浪費와 非能率이 생기기 쉬운 點이다. 이것은 自由市場機構아래에서의 利潤과 自由價格에 匹敵할 만한 指標

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問題이다.

둘째의 短点은 市場機構가 없기 때문에 社會의 各構成員의 經濟的 欲求를 社會的으로 反映하고 그것에 따라서 經濟的諸機會를 提供할 수가 없다는 點이다. 이것으로 因해 消費者選擇의 自由나 職業選擇의 自由가 극히 制限되고, 中央計劃에 의한 生産과 消費者의 嗜好와의 사이에 항상 어떠한 蹉跌이 생기게 된다.

특히 生活水準이 높아져 消費欲求가 多樣化함에 따라 이와같은 경향은 더욱 증대한다고 생각된다.

세째의 短点으로서는 社會主義體制下에서는 中央集權的計劃과 指令에 다르게 되어 있어 企業管理의 自由裁量權이 극히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創意性和 積極性이 欠如되기 쉽고 따라서 技術革新이나 進歩를 위한 誘因이 資本主義體制下에서 만큼 作用하지 않는다는 點이다. 이러한 中央集權的인 計劃과 指令으로 因한 創意性的 凍結 및 積極性的 欠如가 社會主義經濟의 動態的 效率을 害치고, 나아가서 長期的인 經濟의 成長에 重大한 障害가 되고 있는 것이다.

以上은 類型化하여 描写한 資本主義體制와 社會主義體制와를 비교하여, 各各의 長點과 短點을 論한데 不過하며, 現實에서는 兩體制가 모두 各各의 類型과는 尙당히 달리 변모해 가고 있다.

第三章 兩体制의 接近可能과

變貌의 現況 및 展望

§ 1. 兩体制의 接近可能性에 관한 理論

(1) 經濟体制의 收斂論

戰後 많은 經驗을 通하여 西方의 資本主義体制과 東方의 共產主義体制가 相互 弱點을 느끼고 他方의 特徵을 받아들여 서로 類似한 体制上의 構造를 採用하는 모양으로 多樣한 變貌를 하면서, 점차 그 基本的差異를 약간씩 解消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体系的으로 考察해 보는것이 兩体制의 收斂論 (Convergence theory of Economic Systems)이라 定義할 수 있다. (W.L.Loucks, T.S.Prybyla, G.Grossman 등)

收斂論을 展開하고 있는 學者로는 ① 「새로운 産業國家」(The New Industrial Society, 1967)의 J.K.Galbraith, ② 尙世한 兩体制의 變貌分析과 「最適体制」를 展開한 J.Tinbergen, ③ 未來學者이며 프랑스의 社會學者 R.Aron, ④ 美國의 社會學者 P.A.Sorokin, ⑤ 1964年 「競爭的共存의 經濟學」(The Economics of Competitive Coexistence)을 출판한 C.A.Zebot, ⑥ 「社會主義經濟의 最適極能化理論」을 提唱하고 있는 N.Fedorenko, ⑦ 그리고 이밖에도 W.S.Buckingham, P.Wiles, G.Grossman W.N.Lorecks 등 많은 學者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

장 代表的인 Galbraith와 Tinbergen의 見解를 살펴본후 收斂에 대한 反對見解 및 그 論拠의 妥當性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① Galbraith의 收斂論

最近의 代表的인 收斂論者인 J.K.Galbraith는 美國企業의 動向을 素材로 하여 産業經營體에 있어서 組織的 管理集團인 technost-structure의 權力의 增大와 分權的 計劃化라는 特徵에서 兩體制의 社會主義方向에로의 必然論的 收斂論을 展開하고 있다.

i) 資本主義의 變貌의 方向

Galbraith는 高度工業化에 따른 技術進歩와 함께 生産規模의 擴大와 併行하여 現代의 産業組織이 大企業體制中心으로 발전하여 專門化·組織化가 不可避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傾向의 結果로서 나타나는 特徵은 첫째 市場機能의 有効性이 喪失하게 되어 이의 不確實性을 克服하기 위해 社會가 全體로서 計劃化되어가는 것이 必然的運命이라는 點이다. 둘째는 所有와 經營의 分離로 私有財産의 經濟的意義는 利子所得에 縮少되어 私有資本의 意義가 喪失되어 간다는 點이며, 셋째의 特徵은 企業의 意思決定權이 資本家個人으로 부터 組織에로 移行하여 專門的 知識과 技術을 가진 一群의 集團的管理者層인 techmost-structure의 支配下에 들어가지게 된다는 點이다. 그리고 넷째는 企業은 利潤極大化가 目標가 아니라 오히려 最小必要限度의 利潤위에서 企業의 安定과 成長이 主要한 目標로 되어가는 點이며, 이리하여 다섯째 特徵은 企業의 私的性質이 喪失되어가서 經營形態로서 公·社의 區別이 없게 되어 간

다는 점이며 특히 成熟된 法人企業은 國家의 行政的複合體의 一部分으로 되어 大企業은 國家에 依存하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Galbraith는 이와같은 여러 特徵으로 부터 資本主義體制가 社會主義의 方向으로 收斂한다고 結論한다. 만약 私有財産과 私企業制度의 禁止에 社會主義의 重點을 求한다면 Galbraith의 所論은 社會主義는 아니다. 그러나 그는 計劃化, 非利潤動機 및 資本과 企業의 公共性에 그 重點을 求하여 資本主義의 否定과 社會主義에의 移行을 主張한다.

3) 社會主義의 變貌의 方向

다른 한편, 이것과 同時에 現代 社會主義의 典型이라고 보여지는 소련의 과도한 中央集權的計劃經濟體制에 있어서도 大企業의 支配에 相應한 經濟體制로 變貌되지 않을 수 없는 必然性이 있다고 論斷한다. 소련의 과도한 中央集權性 때문에 企業의 自主性은 否定상태에 있다. 그러나 高度로 工業化된 단계에 있어서 企業의 自由性이 없이는 經濟成長이라는 目的으로 부터 보아서 自殺的인 體制이기 때문에, 今後 반드시 大企業의 自主性을 존중하는 分權化된 計劃經濟體制로 移行할 것은 틀림없다고 본다. 1960年代에 이르러 소련이나 東歐共產圈에 있어서 經濟의 自由化의 요구가 表面化한 것은 이의 內的必然性의 表示라고 본다.

現在 소련에서는 部分的이나 分權化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이 소련의 經濟體制가 大企業의 自主的計劃化에의 方向으로 進行되고 있다는 점에서 美國經濟體制와 收斂이 보여진다고 한다.

iii) 따라서 한편 資本主義體制은 市場에 의한 經濟로 부터 計劃된 經濟로 움직이고, 다른 한편 社會主義體制은 市場을 克服한 集權的計劃經濟로 부터 分權에 基礎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Tinbergen의 收斂論

또 한 사람의 代表的收斂論者인 J. Tinbergen은 東西의 兩體制가 相互 過去의 經驗으로 부터 배우고 弱點을 克服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變貌하여 相互 影響을 주고 있으며, 그 根本的인 差異를 완화하여 雙方으로 부터 接近하고 있다는 事實에 注目하여 東西 兩體制의 收斂의 경향을 明白히 하고, 그 收斂의 方向은 最適經濟的인 計劃經濟로 움직여, 어느 것이나 市場經濟를 卒業하여 分權的인 計劃經濟體制로 移行하여 간다는 點에 있어서 兩體制에는 收斂의 보여진다는 것이다.

iv) 그리고 이와같은 事實로 부터 描写되는 社會가 이른바 「새로운 產業國家」로서 새로운 產業國家의 經濟機構는 分權的計劃機構이고, 經濟組織은 少數의 大企業과 그의 管理機構인 technostructure가 支配하는 大企業體制中心으로 國家가 聯合하는 形態를 갖고 있다. 또 이데올로기는 從來의 資本主義나 社會主義의 相互 對立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technostructure의 自主성과 支配를 貫徹하는데 選擇된 1組의 戰略的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人間觀은 金錢的動機가 弱해진 「共鳴」(identification)과 「適合」(adaption)이라는 文化的動機가 體制를 發展시키는 中心으로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Galbraith의 收斂論은 美國을 하나의 典型으로 하여, 너무나 大企業體制中心이고, 無數히 많은 小企業들을 全혀 度外視한 點에서, 또 市場機構의 無力化와 全面的인 計劃化의 代替性을 主張한 點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私有資本의 私的性質을 지나치게 無視한 點에서 너무나 一面的인 誇張에 根拠하고 있다는 共通된 批判이 있으며, 따라서 그의 理論은 J. Tinbergen의 合理主義的 最適體制論에 비해 無理한 論拠體制이라고 論斷했다.

Galbraith의 必然論的 收斂論에 대하여 Tinbergen의 理論은 合理主義的인 最適論으로서, 人間의 合理的인 判斷과 行動을 信賴하여, 合理的인 것은 반드시 實現되며, 그것에 의해서 最適社會으로 移行한다고 主張한 點에서 Galbraith의 理論보다도 合理的인 論拠로 볼 수 있다.

1) 共產主義의 變貌의 動向.

소련과 같이 高度로 中央集權的인 社會主義計劃經濟에도 社會主義의 그 後의 展開와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隨伴하는 技術의 複雜化, 需要의 多樣化등 經濟條件의 새로운 變化에 의해서 또 高度의 集權化에 의한 非能率化의 피해가 현저하게 되고 이의 是正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의 大體的인 動向을 列挙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고 한다.

- ① 生産體制管理의 專門化의 必要性認識
- ② 物量的單位로 부터 貨幣價格·費用의 導入
- ③ 所得平等原則의 廢棄(生産性賃金制度에의 轉換)

- ④ 利潤方式 및 利子の 採用
- ⑤ 消費者選擇의 部分的採用 (消費財割当廢止)
- ⑥ 企業管理者의 部分的自主性 인정
- ⑦ 國際分業의 利益承認
- ⑧ 敎學的計劃化方法의 配慮 (投入算出分析 등)
線型計劃
- ⑨ 重工業化에 의한 不均衡발전으로 부터 部門間의 均衡發展에로의 變化

ii) 資本主義의 變貌의 動向

다른 한편 西方의 變貌는 「自由로운 諸力」에 대한 政府干渉를 특징으로 한다.

그 大體的인 動向을 列挙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主要基幹産業國有化에 의한 公的部門의 擴大
- ② 政府의 財政部門의 劃期的 增大
(各種 社會保障과 所得再分配政策)
- ③ 自由競爭의 制限
- ④ 反트러스트法에 의한 独占禁止
- ⑤ 教育機會의 增大 (義務教育의 普遍化)
- ⑥ 不安定한 市場의 除去
- ⑦ 「計劃化」의 政策役割의 增大
- ⑧ 完全雇用 및 長期發展政策
- ⑨ 各種目的에 의한 賃金
價格의 統制實施

iii) 이와 같은 배경 아래서 Tinbergen 은 兩體制間의 接近의 原因으로서 目標의 共通性, 大規模生産方式에 의한 計劃技術의 類似性, 合理的인 最適社會에의 接近可能性 國家的管理의 類似性등을 들고 있다. 어느 體制에 있어서나 所得의 平等化·生産力의 向上을 結合하여 福祉의 最大를 目的으로 하는 傾向이 支配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類似한 方向에로의 接近可能性에 대하여 다른 한편 依然히 相違한 點도 있다. ① 公的部門의 規模의 差 ② 經營者의 生産過程에서의 自由의 差 ③ 計劃의 細目の 差 ④ 價格統制의 差 ⑤ 産業民主主義의 相異한 類型, ⑥ 教育機會의 差 ⑦ 外國貿易·投資計劃에 있어서 優先原理의 相違등이 있다.

Tinbergen 은 이러한 差異는 量的인 것에 不過하며 質的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③ 收斂論에 대한 批判論

兩體制의 收斂論에 대한 批判은 經濟理論上의 收斂의 可能性을 否定하는 Marx主義經濟學者로 부터의 批判과, 經濟理論上의 可能性은 認定하나 이데올로기의 側面에서 收斂의 否定이나 困難을 主張하는 見解의 두가지가 있다.

i) Marx主義로 부터의 批判

소련 經濟學者들은 社會主義에의 「歸一論」(submergence)者이다. 敎條主義的인 Marx-Lenin主義의 理論에 立脚하여 資本主義體制의 必然的崩壞論을 信奉하는 사람들은 資本主義와 社會主義가

收斂한다는 것은 브르조아學者의 속임수라든가, 또는 歷史的發展法則을 無視한 暴論이며, 오직 社會主義體制에 未來가 있을 뿐이고, 그 意味에서 社會主義에의 歸一論이 唯一의 올바른 解釋이라고 主張한다.

ii)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争点

이전에 대하여, 收斂論의 根柢인 工業化에 따르는 文化의 類似性, 工業經營組織의 類似性 등 兩經濟體制의 發展에는 共通·接近의 傾向을 충분히 認定하지만, 이데올로기나 政治權力의 核心에 저촉하는 領域에 미칠 때는 收斂에의 可能性이 不可能하거나 (A.C.Gruchy) : 현저하게 困難을 받는다 (Grossman, P.Wiles, Z.Brzezinski 등) 는 批判이다. 즉 단순히 經濟的 필요뿐만 아니라 그것과 密着한 이데올로기나 政治權力의 領域에 있어서 對立이 緩和되어야만 兩經濟體制의 接近 및 收斂의 可能性이 있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에는 經濟體制의 收斂論은 誇張에 빠질 危險이 있다고 批判한다.

iii) 批判과 結論

Marx主義者들은 資本主義=私有=市場, 社會主義=社會化=計劃化라고 所謂 劃一主義的으로 定式化·圖式化함으로써 兩體制의 收斂論을 否定하지만, 이는 오늘날 <유고>의 市場社會主義體制와 1960年代 後半의 <체코> 및 <헝가리>의 革新的인 體制改革에서 보는 바와 같이 現實的인 經驗에 反하는 너무나 教條主義的인 dogma에 사로잡힌 理論에 不遇하다. <유고>에서는 部分的인 一 私有

制가 現實的으로 엄연히 認定되고 있으며, 또 市場經濟의 機能을 原則的으로 導入하여 經濟計劃도 macro的 經濟面에 局限하고 指示的・誘導的計劃에 그치게 함으로써 「計劃化와 市場의 有效한 結合」에의 摸索을 現實化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데올로기의 對立에서 經濟體制의 收斂의 可能性을 否定하는 見解도 正當하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絶對的不變性에 基礎하고 있기 때문이다. 現代의 兩이데올로기인 資本主義와 共產主義는 物量擴大가 目的으로 되고 있는 現代産業社會라는, 이른바 工業化단계에서의 이데올로기에 不過하며 앞으로 맞이할 脫工業化단계에서는 이들 이데올로기가 遂行할 役割은 끝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要求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終焉」이나 「脫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어떤 一定(特定)한 諸理念의 終末」이라는 것이 지 결코 이데올로기 그 自体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收斂論으로 부터 말하는 「이데올로기의 終焉」이라는 것은 資本主義와 共產主義의 서로 對立・相爭하는 이데올로기가 그 意義를 喪失하게 된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脫工業化단계에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登場하리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이를테면 K.Boulding이 말하는 바와같이 「그런 故로 만약 轉換을 成功시키는 것에 特別 相應한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그것은 資本主義도 社會主義도 아니고 社會에 適用된 科學的 이데올로기 그 自体이다. 大轉換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는 그것때

문에 이데올로기라기 보다는 「戰略」(Strategy)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喝破하고 있다.

이와같이 經濟体制의 收斂論을 批判하는 Marx主義者의 論擧나, 이데올로기의 争点を 둘러싼 批判論은 모두 이데올로기의 「絶對不變性」에 基礎한 硬直된 偏見이나 dogma에 不過하므로 正當한 見解라고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經濟体制의 收斂에 관한 見解, 특히 Tirbergen의 合理主義的最適体制論은 現實의 經驗으로 보아서 또 앞으로 맞이할 脫工業化단계에 있어서의 合理的인 体制指向의 可能性으로 보아서 正當한 指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收斂의 方向 —最適經濟体制—

① 流動하는 經濟体制

現實의 經濟体制은 從來와 같은 絶對的 基準에 의해서 類型化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資本主義나 社會主義나 의 兩者択一的인 이데올로기의 偏見이나 dogma에서 벗어나 現實의 經濟体制은 相互 영향을 받음으로써 流動化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方向에 있어서 상당한 共通性이 發見되기 때문이다. Galbraith나 Tinbergen이 말한바와 같이 脫工業化를 向한 現代의 高度産業社會에서는 現實의 經濟問題에 많은 共通性이 있고 그 解決方法에 있어서 서로 매우 면서 相互의 長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兩体制은 점차로 相互 類似接近하여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經濟体制의 多樣化·流動化의 現實에서는 以前의

類型化에 볼 수 있는 이데올로기에 固執하여 論理的必然性에 基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基準에 따라 主体的歸結로서 經濟體制를 選擇하는 姿勢가 필요하게 되어 이른바 「體制選擇」의 問題에 歸着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經濟體制的 多樣化, 流動化속에서 ① 體制變動의 共通의 方向은 무엇이고, ② 體制選擇의 새로운 基準은 무엇이며, ③ 또 選擇해야 할 經濟體制的 理論은 무엇일까. ①의 點은 Tinbergen의 收斂論으로부터 論拠가 주어져 있고, 이른바 그의 「最適體制」가 그 共通의 方向이다. 그리고 ②의 點은 Tinbergen에 의한 「効率」과 「連帶性」이 그 基準이 될 것이며, 또 ③의 點은 Tinbergen이 展開하는 「最適體制的 理論」에 따라야 할 것이다.

② 最適經濟體制에의 接近

1) 最適體制的 選擇

「最適體制」(optimum regime)란 「一定한 制約條件을 고려한 위에서 國民經濟 또는 社會的厚生을 極大化하는 1組의 制度」라고 定義된다. 「福祉」— 豊穰 · 成長 · 安定 · 能率 등의 經濟的要素뿐 아니라 社會正義 · 文化發展 · 自由 · 平等 등 非經濟的 精神的 요소까지 포함한— 를 가장 잘 達成하는 體制를 選擇하는 것이 最適體制的 目標이다.

따라서 Tinbergen은 「옛날 19世紀型的 自由企業制度는 最善의 制度는 아니고, 全体에 걸치는 完全한 統제도 마찬가지이다. 두

것이 最善인가는 그러한 것은 주로 程度의 問題이기 때문에 우리의 目標은 先入觀念에 사로잡히는 것없이 最善의 體制를 發見選擇하지 않으면 안된다. 最適이 아닌 體制를 敎條主義的인 基礎에서 選擇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것일 것이다. 이리하여 거의 全體의 것에 관하여 우리가 求하고 있는것은 완전한 balance (均衡)라고 하는 것이다」고 喝破하고 있다.

註: Tinbergen: Shaping the World Economy, New York 1962.

ii) 最適體制의 基準

Tinbergen은 最適體制의 基準으로 「効率」과 「連帶性」을 提示하고 있다. 이들 基準은 모두 現代 厚生經濟學이 提供하는 基準으로서 「効率」이란 「結果와 手段사이의 가장 바람직한 比率」로서 이른바 「명료하게 規定된 目標에 도달하기 위한 努力」을 意味하며, 「連帶性」이란 「共同責任의 要素와 不平等이 없는 團體의 福祉에 대한 배려」라고 한다. 이와같은 基準에 適合한 體制가 福祉最大를 달성할 수 있는 點에서 最適體制라 할 수 있는 것이다.

iii) 最適經濟體制에의 接近

最適狀態는 여러가지 時代에 있어서 各種 사람들의 全體로서의 嗜好에 依存하며, 最適體制는 결코 極端的인 形態를 取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公的部門이나 私的部門, 또는 中央集權이나 分權의 어느 한쪽만이 완전히 존재하는 極端的인 體制 즉 資本主義나 共產主義나 하는 완전한 一方的인 制度와는 合致되지 않는다. 따라서

最適体制의 特徵은 兩極端을 折衷하여 政策의 中心的 手段으로 中央計劃局에 의한 計劃化를 놓고 現在의 資本主義諸國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公的部門에 重點을 두고, 社會主義諸國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私的部門에 重點을 둔 私的·公的 兩部門의 均衡的인 併存体制 즉 새로운 類型의 混合經濟体制가 될 것이다.

§ 2. 兩体制의 變動의 現況

(1) 資本主義体制의 變動의 現況

이미 1926년에 「自由放任의 終焉」에서 J.M. Keynes가 公表한 바와 같이 資本主義体制은 社會主義的要素를 과감하게 받아들여, 自己修正을 斷行함으로써, ① Keynes의 修正資本主義에로 ② 또 新資本主義(neo-capitalism)에로 ③ 그리고 더 나아가 民主社會主義(democratic Socialism)에로 前進하여 보다 最適体制에로 接近해가고 있다. 이와같은 資本主義体制의 획기적인 變貌를 注目하여 J. Strachy나 C.A.R. Crosland는 「20世紀 後半의 資本主義는 從前과는 전혀 다르게 變貌하게 되어, 資本主義라고 부르는 것 그 自体가 명백히 用語의 濫用인 그러한 体制가 온다」고 喝破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英國, 스웨덴, 西獨, 오스트리아 등의 先進資本主義는 모두 福祉國家를 내걸어 自体修正을 擴大해 감으로써 民主社會主義로 前進해 가고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資本主義体制의 變貌는 어떤 原理에 의해서, 그

리고 各國에서 具體的으로 어떻게 修正되고 있는지 아래에서 考察해 보기로 하자.

① 變貌의 一般的動向

資本主義體制의 變動의 모습은 i) 經濟機構, ii) 政治·社會機構, iii) 理念의 세가지 觀點에서 볼 수 있다.

i) 經濟機構面에서는 所有形態 및 市場機構가 각각 현저하게 變貌해 가고 있다.

(가) 所有形態에 관해서 보면 公的部門의 擴大가 두드러져 가고 있다. 公的部門의 擴大경향은 첫째, 財政規模의 漸增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要因으로서는 社會保障·教育·衛生관계 등의 社會 service 支出과 住宅·道路·都市計劃 등 公共事業支出의 增大가指摘된다. 둘째로 公企業의 活動分野가 增大해 가고 있다. 지금까지 企業의 公有化는 社會主義와 同一視되고 있지만 現代의 先進資本主義諸國에는 公企業의 活動이 廣範해져가고 있다.

이와같은 財政規模의 增大에 따르는 政府投資의 增加와 公企業部門의 擴大결과 公的投資의 投資總額중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높은 경향에 있으며, 先進資本主義諸國에 있어서 固定資產에 대한 總投資中에서 차지하는 公的資產의 比率은 3分の1 내지 그 以上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公的投資나 公的貯蓄과 같은 flow面에서의 公的比重의 增大는 결국 stock로서의 資本의 面에서도 公的部門의 比重의 增大를 가져오게 된다. 또 現代의 先進資本主義諸國에서는 私企業도 점차로 公的性格이 強化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政府統制가 強化된데로 의하지만 다른 한편 所有와 經營의 分離의 結果 經營者가 企業活動의 主導權을 掌握하게 되어 利潤追求보다도 企業의 社會的 責任도 충분히 自覺하고 있음에 緣由한다.

(나) 經濟機構面에서의 또 한가지 重要한 變化는 「經濟計劃化」의 進行이다. 現代의 先進資本主義諸國에서는 많은 積은 經濟計劃化를 行하고 있다. 이와같은 經濟計劃은 어디까지나 市場을 基礎로 하고 있지만, 市場機構 따라서 自由競爭도 여러가지 面에서 制限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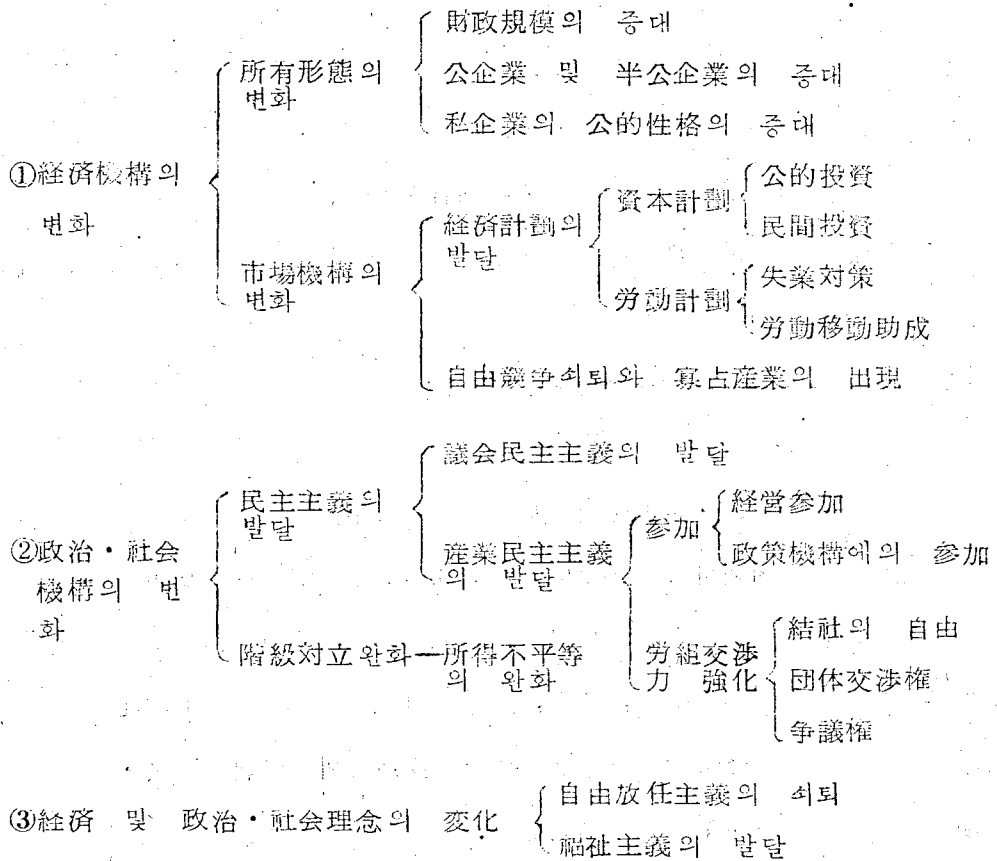
ii) 政治·社會機構面의 變化는 民主主義의 發達이 深化·擴大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議會民主主義 즉 政治的民主主義의 發達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勞使關係의 民主化 즉 產業民主主義의 發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產業民主主義의 深化·擴大의 結果로서 勞使協議制를 비롯하여 勞動者의 經營參加, 所有參加, 分配參加등이 획기적으로 發達하고 있어 勞使間의 階級意識이나 階級對立이 완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iii) 經濟 및 政治·社會理念의 面에서는 自由放任主義의 終焉으로 極端의 個人主義 代身에, 社會連帶主義·相關的個人主義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經濟成長·安定 및 平等등을 위해 政府의 積極적인 經濟에의 介入 및 統制의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認定되고 있다. 특히 國有部門 및 公有部門을 活用하여 經濟를 運營하게 된것은 資本主義의 획기적 變貌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資本主義体制은 私有와 市場機構를 바탕으로 하고, 公有와 計劃化의 原理를 받아들여 混合經濟体制로 나아감으로써 經濟民主主義의 理念을 尙해 不斷히 前進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變化를 一括하여 表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② 各國의 具體的動向

오늘날 資本主義諸國은 모두 市場經濟를 基調로 하면서 그 欠陷 내지 限界를 公的規制 또는 公有化를 通하여 補正·修正함과 同時

에, 各種 政策手段을 통한 經濟計畵을 실시함으로써 混合經濟의 福祉國家로 指向하고 있는 것이 共通된 現象이다. 그러나 市場經濟機能에의 介入의 程度 및 所有構造에 있어서의 公的所有的 比重은 各國의 民主的性格 및 強制力의 程度에 따라 各各 相異한 面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代表的인 特徵을 가진 프랑스의 混合經濟와 이탈리아의 國家持株會社 및 스웨덴의 公的部門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1) 프랑스의 混合經濟

프랑스는 2次大戰後 오늘날까지 經濟計畵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計畵의 促進要因으로서 公有化 내지 公社混合企業을 進前시켰으며, 나아가서 公的部門과 私的部門과의 所謂 協調經濟를 進前시켜 온 데에 프랑스型 混合經濟의 主要한 特徵이 있다.

(가) 프랑스의 公的部門은 다른 資本主義諸國에 비해 훨씬 廣範圍에 達하고 있다.

國有化部門은 첫째로 가스·電力 등의 基幹産業과 金融機關 등 그 經營이 公共的性格을 가지거나 또는 事實上 独占을 가지든지, 独占을 필요로 하는 全體의 産業을 國有化했다. 둘째로 國家의 龍대한 財政的援助를 필요로 하는 國鉄, 航空, 海運 등의 公益事業을 國有化했다. 그리고 셋째로 經營의 惡化로 부터 救助하기 위해 石炭·肥料·保險會社 등 많은 産業을 國有化했다.

그리고 프랑스 石油 등 政府가 議決權에서 優位를 가진 公社混合企業도 상당한 部門에 걸쳐 상당한 範圍에 達하고 있다.

(나) 經濟計劃에 있어서도 프랑스의 計劃은 資本主義諸國에서 가장 強한 特徵을 가지고 있다. 市場經濟를 基調로 하면서도 廣範圍한 國有 및 公社混合企業의 統制에 의해서 經濟機構을 어느 정도 變化시켜 經濟計劃運營의 戰略的槌點으로서 利用하고 있다. 그리고 主要金融機關의 全面的國有化에 의해서 金融面으로 부터도 政府의 統制를 強化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프랑스型 混合經濟는 廣範圍한 競爭的公企業의 存在에 의해서 市場槓桿를 維持함과 아울러 公企業이 가진 非效率性을 어느 정도 排除하고 있다.

ii) 이탈리아의 國家持株會社

이탈리아型의 混合經濟는 프랑스型만큼 經濟計劃이나 公有化는 進前되지 않았지만 經濟計劃의 質的方法으로서 國家持株會社의 發達 및 그 役割에 주요한 特徵이 있다. 國家持株會社란 主要基幹產業에 있어서 本來의 公企業과 事業會社의 全株式 또는 過半數의 株式를 國家가 所有하고 企業活動은 民間 base에서 行하게 하는 이탈리아 特有의 公社混合企業으로서, 一種의 經濟內部에 組織된 價格統制의 手段으로 活用되고 있다.

그 機能이나 役割은 첫째, 市場經濟原理를 貫徹시켜 競爭促進의 核으로서 自由競爭의 利益을 確保하고, 둘째 公益性을 가지는 產業의 價格, 私的獨占이 強한 產業의 價格을 國家持株會社의 價格政策을 통하여 統制한다. 이와같이 國家持株會社는 自由競爭의 利點과 公益性을 훌륭히 調和시킨 이탈리아에 特有한 制度로서 이탈리아型

混合經濟의 주요한 特徵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iii) 스웨덴의 公的部門

스웨덴型混合經濟의 현저한 特徵은 資本主義諸國의 어느 混合經濟보다도 그 公的部門의 比重이 壓倒的으로 크다는 點이다. 스웨덴에서는 固定資產의 國·公有라는 傳統的形態의 社會化는 다른 나라만큼 행해지지 않았지만, 固定資產의 flow의 社會化, 金融資產의 社會化 및 機能的 社會化라는 形態로 廣範한 社會化가 進行되고 있다는데 주요한 特徵이 있다.

스웨덴型混合經濟의 特徵으로서는 첫째, 政府支出의 比重이 GNP의 거의 50%를 차지하여 資本主義體制에서 가장 높다는 點이다. 둘째, 固定資產의 公有 또는 社會化의 比重은 비교적 낮지만, 스웨덴特有의 새로운 社會化形態인 이른바 '金融資產의 社會化, flow의 社會化 및 機能的社會化의 比重이 점차 增大되어 가고 있다는 點이 最近의 特徵이다. 그리고 세째로, 消費者協同組合을 비롯한 各種의 協同組合이 발달하여 流通面만이 아니라 生産·住宅·金融面에 이르기까지 私企業에 대한 競爭的인 對抗力으로서 役割하고 있다는 點이 또 하나의 特徵이다. 이러한 各種의 協同組合은 独占에 對抗하여 價格을 引下시키고 競爭을 有效하게 行함으로써, 私企業의 合理化와 技術革新을 促進시키게 되어, 經濟的 效率과 平等에 有效한 役割을 遂行하고 있는 것이다.

(2) 共產主義體制의 變動의 現況

한편, 社會主義體制에 있어서도 資本主義體制的 경우만큼 현저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상당한 變貌을 하고 있다. 특히 注目을 要하는 것은 똑같은 社會主義體制라고 불리워지고 있어도, 가장 保守的인 소련型的 中央集權的인 社會主義的 計劃經濟體制와 보다 革新的인 유고型的 分權的인 社會主義的 市場經濟體制와는 그 變化의 樣相이 아주 다르다는 點이다.

① 變貌의 一般的 動向

社會主義體制的 變動의 모습도 i) 經濟機構, ii) 政治·社會機構, iii) 理念의 세가지 觀點에서 찾아볼 수 있다.

i) 經濟機構面에서는 所有形態 및 市場機構가 각각 상당한 變모를 해가고 있다.

(a) 우선 所有形態에 관해서 보면 소련에서는 거의 全部의 生産手段이 公有制下에 있지만 유고에서는 私有的 部分도 상당히 存在한다. 유고에서는 農業에 있어서의 私有部門은 全耕作地面積의 87% (1964年)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3%를 國營農場과 協同農場이 차지하고 있다.

工業部門의 企業은 유고에서도, 소련에서도 同一하게 모두 公有化되고 있다.

(b) 다음에 市場機構의 評價에 관해서는 유고와 소련은 大體的으로 立場을 달리하고 있지만, 소련에서도 점차로 그 評價를 높여 가고 있다.

유고에서는 일찍부터 公有制下에서 市場機構의 活用을 圖謀하는

市場社會主義 즉 競爭的社會主義라는 形態를 取해오고 있다. 이것
은 Oscar Lange나, F.W. Taylor가 主張하는 「競爭的社會主義」
(Competitive socialism)의 經濟모형에 對應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소련에서는 中央當局에 의한 計劃機構가 全經濟部門을
包攝하고 있지만, 價格이나 利潤, 利子등의 市場機構의 要素의 導入
이나 企業의 自由性의 존중에 의한 分權化가 提案되어 部分的으로
는 行해지고 있다.

ii) 또 政治·社會機構의 面에서 보면 유고에서는 經濟에 있
어서의 生産者管理 즉 「勞動者自治管理」制度라고 불리워지는 地域
공동체 (Commune) 및 都市·地方에 있어서의 勞動者의 自治가 國
家の 政治·社會組織의 基盤으로 되고 있다. 이와같이 유고에서는
勞動者에 의한 直接管理 즉 勞動者의 直接經營參加에 의한 産業民
主主義는 勿論, 企業自治管理로 부터 地方自治管理, 社會自治管理의
原則에 의해서 政治權力의 分權化, 一黨獨裁의 完화에 나아가고 있
다는데 特徵的變貌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소련에서는
共産黨獨裁에 의해 黨 및 政府의 上層部를 頂點으로 하는 巨大한
피라미型官僚組織이 形成되어 있다. 따라서 國民生活의 全領域에
걸쳐서 중요한 意思決定의 全部와 놀라운만큼의 細部的意思決定이
지극히 少數의 사람들에 의해서 行해지고 있어서, 勞動者의 管理機
能에의 參加에 의한 産業民主主義는 全적으로 排除된다.

iii) 그리고 經濟 및 政治·社會理念에 관해서는 平等主義와
全體主義를 原則으로 하고 있지만, 經濟活動 成果에 의한 報酬등의

差別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取해지고 있어, 平等主義와 全体主義는 상당한 制限을 받고 있었다. 이것은 企業이나 個人의 勞動者에게 能率的인 生産에의 強熱한 誘因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소련에서도 尤고에서도 그와같은 制度가 導入 실시되고 있다.

특히 最近 소련 및 東歐에서 表面化된 經濟自由化의 물결은 많은 變化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社會主義의 바탕을 무너뜨리는 것에의 恐怖때문에 一步前進 二步後退하는 現狀도 보여지고 있지만 計劃經濟에서는 處理할 수 없는 工業化社會의 多樣性에 直面하여 市場經濟化에의 傾向을 보여주고 있는것은 否定할 수 없다.

(2) 各國의 具體的動向

i) 經濟改革의 動機와 類型

소련을 비롯한 東歐諸國은 Stalin型의 過渡한 中央集權的計劃經濟體制를 模倣 運營함으로써, 1950年代末까지 經濟發展이 낮은 단계에서는 全体主義的獨裁에 의해 비교적 順조로운 經濟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經濟가 發展함에 따라 이러한 Stalin型의 이른바 <壓制에 의한 成長> (growth by force)方式은 여러 종류의 制度上의 欠陷이 露呈되어 浪費와 非能率의 限界에 부딪혔다. 그 결과 1960年代에 들어와서 소련 및 東歐全體를 通하여 經濟成長의 鈍化·沈滯가 顯在化했으며, 특히 先進工業國일수록 그 傾向은 더욱 強했다. 따라서 이와같은 浪費와 沈滯를 止揚하고 効率的인 經濟成長을 위한 새로운 活力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 共產國諸國의 經

濟改革의 動機이다.

이미 1951년에 유고가 中央集權的計劃經濟體制에서 市場社會主義體制로 獨自의 體制改革을 획기적으로 斷行했고, 또 1956년 才 20次 소련共産黨大會에서 「社會主義달성의 길」이 各國의 事情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이른바 「社會主義에의 移行의 多樣性」(Diversity of Socialism)의 原則이 確認되어 社會主義의 正統的 劃一性이 완화된 후, 改革의 試圖는 各國에서 具體化되었다. 특히 1962年 9月 「프라우다」紙에서 소련의 E.G. Liberman이 「利潤制度」의 導入을 主唱한 「計劃·利潤·價與金」이라는 論文發表를 契機로 經濟改革은 實踐的課題로 登場했다. 이리하여 各國은 各自의 具體的인 模型을 만들어서 改革에 着手하게 되었는데, 그 改革의 內容은 各國에 따라 그 類型을 달리한다.

따라서 소련 및 東歐諸國의 經濟改革은 合理的인 體格形成을 위한 市場經濟의 導入與否를 中心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두가지 類型으로 大別할 수 있다.

① 첫째類型은 從來의 中央集權的命令體制의 原則이나 組織을 根本적으로 變化시키지 않고, 어느정도 合理的要素를 導入하여 能率을 改善하려는 構想으로 이른바 「部分的地方分權」型的 保守的인 改革이다.

② 둘째類型은 自由市場經濟機能을 原則적으로 받아들이고, 經濟計劃을 macro的經濟面에 限定하여 指示的·誘導的인 것으로 하려는 構想으로 이른바 「市場社會主義」型的 革命的인 改革이다.

소련을 비롯한 東獨,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改革은 前者의 類型이고, 체코 및 헝가리의 改革은 後者の 類型이다.

이리하여 오늘날 共產圈의 經濟體制는 ① 아직도 從前과 다른 없는 保守的인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 < (註) 中共·알바니아·北韓·몽고 > 와 ② 다소 進步的인 部分的地方分權制의 計劃經濟體制 < 소련·東獨· 폴란드·불가리아·루마니아 > 와 ③ 革新的인 市場社會主義 즉 社會

註: 이들 中共·알바니아·北韓·몽고 등에서 아직 經濟改革의 積極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은 低開發國이라는 그들의 共通된 發展단계의 格差에 그 原因이 있다고 생각한다.

主義的市場經濟體制 < 유고·체코 (註)·헝가리 > 의 세가지 類型으로 大別할 수 있을 정도로 體制變化가 현저하게 되었다.

註: 체코는 그 후 1968년에 다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로 復歸하였다.

따라서 中共, 알바니아,北韓 등은 전혀 體制變貌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므로 除外하고, 經濟改革의 代表的特徵을 가진 소련, 유고 및 체코의 경우를 다음에서 考察해 보고자 한다.

㉑) 소련의 部分的地方分權體制

소련은 1965年 9月 共產黨中央委에서 Kosygin首相의 改革案을 採択하여, 從來의 中央集權的 計劃經濟方式을 基本的으로는, 變更시키지 않고, 過渡한 中央集權에 의한 弊害를 어느정도 改善하기 위하여, 企業의 相當한 自主性을 許容하는 部分的地方分權體制에로 經濟改革을 斷行했다. 改革의 主要骨子は ① 中央의 指命에 의한 義務的

計劃指標을 改革前의 40 ~ 50 가지에서 8 가지로 大幅縮少하여 어느 정도 企業活動의 自主性을 賦与하고, ② 企業活動의 成果指標을 從來의 總生産高로 부터 利潤 및 總販売高로 轉換했으며, ③ 國民經濟會議을 폐지하고 다시 省制度에 復歸하여 어느 정도의 權限과 責任을 下部機關이나 地方機構에 分權的委讓을 실시하고, ④ 利潤중에서 企業留保部分을 증대시켜 物質的獎勵基金으로 하여, 生活發展基金, 社會文化基金, 住宅·福祉基金등으로 物的刺戟制度를 改善했으며, ⑤ 價格體系를 合理化하기 위해 工業製品價格을 全面的으로 改訂한 點 등이었으며, 이 新經濟制度는 現在 工業企業의 全部門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이 改革은 当初 1962年9月 Evsey Liberman이 主唱한 革新的의고 自由主義的인 改革案을 크게 後退시킨 妥協的產物이었지만, 中央集權의 命令型보다는 크게 進歩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價格의 決定은 中央計劃當局의 恣意的인 決定에 依存하기 때문에, 價格은 財貨의 稀少性 즉 機會費用을 反映하지 못하여 資源配分의 合理性을 期할 수 없으며, 따라서 浪費와 非效率은 여전히 殘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하여 最近에는 企業의 最大限의 自主性, 市場에 있어서의 需要供給의 原理 및 中央集權的計劃의 폐지등으로 이른바 유고型의 市場社會主義方向에로의 改革을 主唱하는 더 革新的의고 過激한 提案이 G. S. Lisitikin 등에 의해 提起되고 있다.

(11) 유고의 市場社會主義體制

유고는 1945年 소련型의 中央集權의 社會主義計劃經濟體制를 시작했지만, 企業의 國有化와 中央集權의 統制管理는 필연적으로 國家官僚主義의 格害에 이른다는 反省下에, 1951年에 劃期的으로 體制改革을 斷行하여 独自の 유고型市場社會主義에의 分權의 體制로 移行하였다.

유고型市場社會主義의 主要한 特徵으로서는, ① 國家官僚主義의 格害를 排除하기 위하여 企業의 「國有」制를 否認하고, 유고独自の Commune (地域共同體) 所有 — 公有制 — 로 移行했고, ② 生産手段의 公有制를 基礎로 하면서도 農業에 있어서 私有制를 導入했으며, 또 ③ 分權的인 市場經濟機構를 原理로 하여 指示的·誘導的經濟計劃을 行했고, 그리고 ④ 유고 独自の 「勞動者自治管理」에 의한 企業經營으로 産業民主主義가 발달했으며, 나아가서 ⑤ 이 勞動者自治의 原理가 政治·社會面의 分權化에도 作用하여 共産黨獨裁를 완화하여 民主主義에로 進一步하였다는 點들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유고型市場社會主義의 特徵의 變貌는 所有形態·市場機構 및 政治·社會機構의 세가지 面에서 考察할 수 있다.

첫째, 所有形態에 관해서 보면, 유고는 生産手段의 公有制를 基礎로 하면서도 部分的으로는 資本主義的要素인 私有制를 받아들여 公的部門과 制限된 私的部門의 이른바 公·社混合의 所有形態를 取하고 있다는데 重要한 特徵이 있으며, 이는 다른 共産主義諸國에서는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실로 劃期的인 變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고에서는 農業에서만 私有가 存在하며, 全耕作地面積의 87%가 私有部門이고, 나머지 13%가 國營農場과 協同農場의 所有

로 되어 있다. (1964年現在)

둘째, 市場機構에 관해서 보면, 유고는 中央集權的經濟體制로부터 分權的인 市場社會主義 즉 社會主義的市場經濟體制으로 移行함으로써 分權化된 市場機構의 原理를 全面的으로 받아들이고, 計劃을 macro 的經濟面에 局限시켜 勸告的, 指示的計劃에 그치게 하여, 이른바 「市場과 計劃化의 有効한 結合」을 꾀한 點에 그 基本的인 特徵이 있으며, 이것도 共產圈에 類例없는 革新的인 變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價格을 비롯한 모든 經濟活動은 原則的으로 市場價格機構 (Price mechanism)의 原理에 의해 決定되며, 聯邦政府當局의 計劃은 執行計劃이 아니고 市場經濟로 誘導하는 指示的·誘導的計劃으로 되어 가장 自由市場經濟에 가까운 形態로 接近하게 된 것이다.

세째로 政治·社會機構에 관해서 보면, 유고 独自の 社會主義企業經營制度인 「勞動者自治管理」制度의 原理가 經濟面만이 아니라 政治·社會面의 分權化의 指導原理가 되어, 勞動者의 經營參加 및 直接管理에 의한 産業民主主義로 進前하고, 마침내 企業自治管理로부터 地方自治管理, 社會自治管理의 原則으로 되어 一黨獨裁의 완화와 더불어 直接民主主義로 進前하게 되었다는데 進取的인 特徵이 있으며 이것 또한 다른 共產圈諸國에 類例없는 革新的인 變貌라고 할 수 있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같이 유고型市場社會主義의 이와같은 劃期的인

諸變態는 從來의 社會主義國有論에 基한 中央集權의 計劃經濟라는 敎條主義의 觀念으로는 想像조차 할 수 없는 실로 革命的인 意義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注目을 要하는 것은 유고의 市場社會主義가 生産手段의 公有制를 基礎로 하면서 部分的인 私有制를 導入하고, 또 分權的인 市場經濟機構를 原理로 하면서 指示的計劃을 가진 點에서 이론마 새로운 類型의 유고型「混合經濟體制」로 나아감으로써 보다 最適體制에 接近했다는 點이다. 실로 이 點이 이 말로 經濟體制의 收斂論에 대한 實証的論拠를 提供해 주는 훌륭한 資料라 생각된다.

iv) 체코의 市場社會主義體制에의 改革

체코의 經濟改革은 共產國에서 가장 革新的인 이론마 「市場社會主義」經濟體制의 모델을 만들어 실시되었다. 革新派의 代表的理論家인 Ota Sik의 改革案이 「國民經濟의 計劃管理의 新制度」로 1965年 1月 共產黨中央委에서 採択되어, 1965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67년에는 國民經濟의 全体에 걸쳐 실시되게 되었다.

이 「新經濟制度」는 舊制度를 根底로부터 뒤엎든 革新的인 것으로서, 그 주요한 特徵은 ① 中央指令的計劃 및 中央集權의 管理機構의 폐지, ② 自由競爭市場機構의 全面的導入, ③ 企業의 利潤追求目的과 自主的經濟主體, ④ 投資의 全面에 가까운 分權化, ⑤ 對外貿易의 自由化, ⑥ 勞動者의 全面的·直接的經營參加 등으로, 이는 企業家精神을 發揮시켜 資本主義의 自由競爭의 市場經濟體制에 크게 接近하려고 試圖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체코의 市場社會主義體制에의 經濟改革은 「私有制」를 導入하지 않았다는 點만 除外하면, 유고의 市場社會主義體制보다 더욱 革新的이며, 따라서 「生産手段의 公有」라는 點만 除外한다면 西方의 資本主義的市場經濟體制와 根本적인 差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체코의 市場社會主義의 이와같은 特徵的變貌는 실로 劃期的인 意義를 가지며 經濟體制의 收斂論에 대한 實證的論據를 提供해 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체코의 經濟改革의 重要한 特徵의 하나는, 1968年 3月 革新派의 指導者 A. Dubcek 가 党第一書記가 된 후는 經濟改革의 前提로서 우선 政治的民主化를 試圖했다는 點이다. 「行動綱領」 「二千語宣言」이 發表되어 言論의 自由, 集會結社의 自由, 檢閱制度의 폐지, 多數黨의 認定 등 政治的民主主義의 確立을 要求하여 過激한 政治運動으로 發展되었다.

그후 이러한 체코의 急激한 政治狀況의 變化에 소련이 警戒하게 되어, 그 惡名높던 L. Breznev 의 「制限主權論」에 의해 소련을 비롯한 「와르샤와」條約國의 軍事介入으로 말미암아, 체코의 理想主義的인 經濟·政治의 改革은 結局 失敗로 끝나고 말았으며, 다시 強制에 의해 中央集權體制에로 復歸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3. 兩體制의 接近과 그 展望

(1) 接近하는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C.A.R. Crosland 著 「社會主義의 將來」(The Future of Socialism)에 의하면 現在에 있어서 資本主義나 社會主義나 하는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對立은 時代에 뒤떨어진 것이다 한다. 그러한 對立은 19世紀에는 意味가 있었으나 資本主義가 社會主義的 要素를 받아들여 變質했기 때문에 意味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考察에서도 본바와 같이 現代 특히 戰後에 들어와서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는 相互 弱點을 克服하기 위해 他方의 長點을 받아들여 서로 類似한 體制上의 構造를 採擇하는 方向으로 多樣한 變貌를 하면서, 점차 그 根本的인 差異를 解消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資本主義體制는 生産手段의 私有와 自由競爭市場의 本質的欠陷으로 인한 所得 및 財産의 不平等, 失業과 貧困, 勞使關係의 對立 그리고 恐慌 및 인플레이션 그 內在的矛盾을 통렬히 느껴왔고, 社會主義體制도 生産手段의 全面的社會와 過渡한 中央集權的計劃·統制 및 共産黨의 經濟權力独占으로 인한 創意性의 凍結, 經濟的自由의 喪失 그리고 非能率과 浪費등의 國家官僚主義的矛盾을 痛切하게 느껴왔다.

이리하여 資本主義體制와 社會主義體制는 서로의 特徵的要素를 과감하게 받아들여 相互의 短點을 버리고 長點을 살려 다같이 自体修正을 해 온 것이다.

資本主義體制의 自体修正의 一般的 動向은 ① 私的所有의 制限 ② 固有化에 의한 公的部門의 擴大 ③ 自由競爭 및 市場役割의 制限, ④ 計劃化의 增大, ⑤ 社會保障 및 所得再分配政策의 擴大

(6) 労働組合의 발달 및 労働者의 經營参加에 의한 産業民主主義의 발달 (7) 反트러스트등 独占禁止의 擴大 (8) 義務教育普遍化에 의한 教育機會의 增大 (9) 完全雇傭 및 經濟發展을 위한 政府機能의 增大, 그리고 (10) 民主主義의 深化·擴大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社會主義體制의 自体修正의 一般的 動向으로는 ① 生産手段의 部分的私有認定<유고> ② 利潤 및 利子등 市場經濟原理의 導入 ③ 企業管理의 自主性擴大 ④ 所得平等化原則의 廢棄(生産性賃金制度에의 轉換) ⑤ 労働者自治管理에 의한 産業民主主義의 발달(유고, 체코, 폴란드) ⑥ 消費者選擇의 部分的採用(消費財割當제) ⑦ 經濟權力の 部分的地方分權化 ⑧ 數學的計劃化方法의 導入 그리고 ⑨ 政治的民主主義에 의한 一黨獨裁의 緩和(유고, 체코)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資本主義體制와 社會主義體制는 서로의 短點을 克服하기 위해 他方의 長點을 과감하게 받아들여 自体修正을 해감으로써, 最善의 目標인 最適經濟體制를 向해 相互 接近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最適體制에로의 相互接近을 兩體制의 所有形態·經濟結構 및 政治·社會機構 그리고 理念의 面에서 考察할 수 있다. 첫째, 所有形態의 面에서는, 資本主義諸國은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거의 例外없이 公有部門을 갖고 있어 이른바 公·私混合所有의 形態를 取하고 있다. 이에 反해 社會主義諸國은 거의 私有를 認定하지 않고 있으나, 가장 革新的인 修正을 한 「유고」의 경우에는 私的

所有가 상당히 認定되고 있다. 따라서 生産手段의 所有形態에 관해서는 그 比重은 正反對이지만 資本主義諸國과 유고는 다같이 公的部門과 私的部門을 併存시키고 있어 兩體制은 公·私混合所有의 形態로 接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經濟機構의 面에서는 資本主義諸國은 거의 例外없이 自由市場經濟를 基礎로 하면서 誘導的·指示的計劃을 取하고 있다. 이에 대해 社會主義諸國은 그 體制改革이나 修正의 程度가 各國에 따라 相異하기 때문에 劃一的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革新的인 修正을 한 유고나 체코의 경우는 自由競爭의 市場經濟에 크게 接近하여 分細的市場經濟를 全面的으로 導入하고 計劃은 macro的의 面에만 局限시켜 指示的·誘導的計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經濟機構의 面에서는 兩體制은 다같이 市場과 計劃化의 有效한 結合으로 市場經濟를 基礎로한 指示的·誘導的計劃으로 接近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로 政治·社會機構의 面에서는 資本主義諸國은 例外없이 政治的民主主義를 深·發展시켜 가고 있으며, 또 勞使協議制·勞使共同決定制度 등 勞動者의 經營參加 및 政策機關에의 參加를 通한 産業民主主義에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社會主義諸國은 그 體制改革이나 修正의 程度에 따라 各各 相異하지만 가장 革新的인 改革을 한 나라는 역시 유고와 체코이다. 유고의 경우에는 「勞動者自治管理」制度에 의한 全従業員의 直接的經營參加로 産業民主主義는 세계에서 가장 發展하고 있다. 그리고 이 勞動者自治의 原理가 地方自治, 社會自治의 原理로 擴大·發展되어 마침내 政治·社

會面의 分權化에 作用함으로써 一黨獨裁를 完化하고 直接民主主義로 發展되고 있다. 또 체코의 경우에도 유고와 마찬가지로 勞動者의 直接經營參加에 의한 産業民主主義가 발전하고 있으며, 經濟改革의 前提로서 政治的民主化가 요구되어,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와 檢閱의 廢止, 多數黨의 認定등 이른바 政治的民主主義로 改革이 斷行되었으나 소련의 彈壓에 의해 挫折되었다. 이와같이 政治·社會 機構의 面에서도 資本主義體制와 유고 및 체코의 市場社會主義體制는 다같이 政治的民主主義와 産業民主主義를 向하여 相互 接近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理念의 面에서는 資本主義體制는 例外없이 個人主義와 自由放任主義를 止揚하고 相關的個人主義·社會連帶主義 및 統制主義를 받아들여 自由와 平等의 調和를 期하면서 福祉主義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社會主義體制는 平等主義·全體主義를 理念으로 하고 있지만 經濟成果에 대한 報酬의 差別을 積極化하여 平等主義를 多少間 制限하고 있으며 또 自由의 價值와 個人의 尊嚴性에 대한 自覺이 일어나 유고·체코 및 헝가리 등에서 보는 바와같이 經濟面만이 아니라 政治·社會面에서 自由가 어느정도 復活되고 있다. 이와같이 資本主義體制로 自由를 어느정도 制限하고 平等을 擴大시키는 反面, 社會主義體制는 平等을 어느정도 制限하고 自由를 增大시키고 있다. 따라서 兩體制는 結局 自由와 平等의 調和에로 接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같이 資本主義體制와 社會主義體制中 가장

進歩的인 유고 및 체코의 市場社會主義體制는 現實的으로 所有形態, 經濟機構 및 政治·社會機構 그리고 理念의 諸面에서 거의 類似한 體制上的 構造를 採択하여 相互·接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資本主義體制와 유고의 市場社會主義體制는 公·私混合所有形態, 市場과 計劃의 有効한 結合, 政治的民主主義 및 産業民主主義 그리고 自由와 平等의 調和라는 실로 모든 면에서 類似한 體制上的 相互 接近을 現實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데 注目할 필요가 있으며, 이점이야말로 兩體制의 收斂論에 대한 實証的論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以上에서의 유고나 체코의 경우에서 본 바와같이, 비록 그 時間的인 先後差異는 있을지라도, 소련을 비롯한 餘他の 東歐諸國은 물론, 가장 保守的인 中共, 알바니아,北韓 및 몽고의 경우에 있어서도 언젠가는 革新的인 體制의 修正이 不可避하며, 그 修正의 方向은 現在의 유고型 市場社會主義體制와 類似한 方向으로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結局에는 最適體制를 向해서 資本主義體制와 相互 接近할 것으로 생각된다.

(2) 兩體制接近의 展望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資本主義體制와 社會主義體制는 相互 最適體制를 向해 接近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침내는 가장 保守的인 中央集權的計劃經濟體制도 最適經濟體制로 接近하게 되어, 資本主義體制와 相互 接近하게 되리라 展望된다.

그리고 그 最適體制의 方向은 以上の 考察에서 이미 示唆된 바와같이 「多元的混合經濟體制」라고 할 수 있다.

사실, 現實的으로도 資本主義體制과 유고의 市場社會主義體制는 公私混合의 所有形態, 市場과 計劃化의 有效한 結合, 政治的民主主義 및 産業民主主義, 그리고 自由와 平等, 따라서 個人主義와 全體主義의 有機的調和를 指向하는 點에서 비록 그 價值觀이 多元的이지만 兩體制가 다같이 「混合經濟體制」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資本主義諸國의 混合經濟體制가 資本主義體制에 基礎하면서 社會化와 計劃化 내지 社會的統制를 導入하여 混合經濟體制化하고 있음에 反하여, 유고는 生産手段의 Commune所有 즉 公有制에 基礎하면서 資本主義的要素 — 分權的市場經濟와 私有制 — 를 導入하여 混合經濟化하고 있다. 結局 이 兩者는 逆의 方向으로부터 混合經濟化하여 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兩體制가 立脚하고 있는 經濟社會制度에 는 아직도 큰 差異가 있다. 그 差異로는 ① 公的部門의 規模의 差, ② 經營者의 自由의 差, ③ 計劃의 細目의 差, ④ 價格統制의 差, ⑤ 産業民主主義의 相異한 類型, ⑥ 教育機會의 差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J. Tinbergen이 指摘한 바와같이 重要한 質的差異는 아니고 量的差異에 不過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量的差異를 어떻게 解決·接近하느냐가 今後의 課題라고 생각된다.

물론 資本主義體制의 混合經濟와 유고의 混合體制가 이러한 相互의 量的差異를 가까운 將來에 解決하리라고는 期待할 수 없겠지만 長期的으로 展望할 때는 兩體制가 다같이 量的인 改革과 修正을

擴大하면서 相互 最適體制를 向해 보다더 接近하리라고 생각된다. 資本체제의 混合經濟체제는 英國, 스웨덴 등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른바 民主社會主義 내지 改良主義的社會主義의 方向으로 進前함으로써, 公有部門이 量的으로 더욱 增大되어 私的部門의 方向을 따라서 經濟全體의 方向을 決定할 수 있을만큼 擴大되고, 市場經濟의 機能이 더욱 制限되어 計劃化가 더욱 增大될 것이며, 勞動者의 經營參加 및 自治管理에 의한 産業民主主義도 더욱 擴大·深化되리라고 展望된다. 그리고 한편 社會主義체제의 混合經濟체제도 유고·체코 등에서 豫見되는 바와같이 自由社會主義 내지 修正社會主義의 方向으로 進前함으로써, 私有部門이 現在보다는 더 擴大되고, 市場性이 더욱 強化되어 計劃이 指示的計劃으로 보다 完化될 것이며, 勞動者의 自治管理와 經營參加에 의한 産業民主主義도 더욱 擴大·深化될 것이고, 그리고 또 全體主義的獨裁가 完化되어 民主主義가 훨씬 強化되게 될 것이라고 展望된다.

그리하여 兩체제는 보다 더 類似한 最適體制를 向해서 相互 接近을 繼續하여 갈 것으로 展望되는 것이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그러한 接近을 繼續하겠지만, 短期的인 面에서는 역시 그와같은 接近을 抑制·妨害하는 現實的要因이 常存하고 있음도 事實이라 하겠다.

특히 1968年 체코의 「自由化」의 물결이 소련軍의 탱크에 의해 挫折되었다는 事實은 過激한 改革에 대한 現實的限界를 보여 주는 좋은 証佐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체코의 經濟改革과 政治的民主化의 激動이 소련에 까지 波及되어 共産党的 独裁權力을 弱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해서 取한 措置라 생각된다.

사실, 소련을 비롯한 共産圈諸国은 共産党이 經濟에 있어서는 물론 政治·社会·文化에 이르기까지 一切의 權力을 独占的으로 支配하는 所謂 「政治優位」의 國家이기 때문에, 中央集權的計劃經濟體制는 共産党的 政治權力과 密接한 結合을 하고 있으며 이 中央集權的計劃體制의 崩壞에 의한 分權的體制에의 改革은 바로 共産党的 独裁權力을 弱화시키는 結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經濟的必要에 의해서만 共産圈體制의 分權化를 期待하는 것은 現實的으로는 無理이며, 中央集權的計劃體制의 抜本的改革으로 인한 市場社会主義體制에로의 接近은 가까운 將來에는 期待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第四章 南·北韓經濟体制의 基本的特徵과 兩体制接近의 可能性

§ 1. 南·北韓兩体制의 基本的特徵

南韓은 分權的인 資本主義的市場經濟体制을 基本原理로 하고 있고,北韓은 中央集權的인 社會主義的計劃經濟体制을 그 基本原理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考察한 經濟体制의 類型 및 基本的特徵, 그 長點과 短點, 그리고 体制變貌의 一般的特徵등에 관한 諸所論은 南北韓의 兩經濟体制에 있어서도 基本的으로는 그대로 適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南·北韓의 兩經濟体制은 다같이 後進工業化段階라는 低開發段階에 相應하는 經濟体制라는 點에서, 先進工業化段階에 있어서의 經濟体制와는 다른, 이른바 그 發展段階의 落差에서 오는 基本的인 特徵을 各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南韓의 資本主義体制

南韓은 「公式計劃機構」를 갖고 있는 資本主義的市場經濟体制이다. 따라서 基本的으로는 生産手段의 私有制와 分權化된 市場經濟機構를 取하고 있다는 點에서 資本主義的市場經濟体制에 屬하지만, 歐美 先進資本主義에서 볼 수 있는 一般的인 類型은 아니다. 解放後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에서 벗어나 流通過程近代化中心의 移植된 初期 資本主義的 狀態에서, 발달된 先進資本主義的 要素를 받아 들임으로써, 多分히 修正資本主義의 性格을 內包한 奇형적인 後進資本主義라는

데 基本的 特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資本主義의 市場經濟를 維持하면서 私經濟部門과 公經濟部門을 積極的으로 併存시키며 또 經濟計劃을 실시하기 위해 政府가 私經濟部門을 規制하는 經濟體制를 混合經濟體制라고 한다면, 南韓의 經濟體制는 一応 混合經濟體制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先進資本主義諸國이 指向하는 混合經濟體制가 高度의 發展段階에 따라 資本主義體制의 短點을 止揚하고 社會主義體制의 長點을 받아들인 이른바 修正資本主義 내지 改良主義的 社會主義의 體制임에 對하여, 韓國의 경우는 低開發의 後進段階에서 볼 수 있는 急速한 工業化社會의 建設을 自由市場機構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取해진 이른바 後進資本主義型의 混合經濟體制인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混合經濟는 高度發展段階의 先進資本主義諸國의 混合經濟와는 그 性格이나 內容이 다른데 特徵이 있다.

이와같이 韓國의 資本主義體制는 初期資本主義的 性格과 先進資本主義的인 修正主義的 性格을 多分히 複合的으로 띠고 있는 奇형적인 後進資本主義體制로서, 部分的인 公有部門과 先進資本主義諸國보다 強한 性格의 「公式計劃機構」를 갖고 있는 이른바 後進工業化段階의 混合經濟體制라는데 그 基本的인 特徵이 있다 할 것이다.

南韓의 資本主義體制는 극히 낮은 段階이긴 하지만 一種의 混合經濟體制이기 때문에, 經濟活動의 主体는 私企業이 爲主이고, 制限된 部門에서 政府기타 公企業이 이에 參加하며, 그것을 管理하는 人間主体는 資本家階級이 爲主이고, 극히 限定된 範圍에서 形式上으로나

마 勞働者階級の 間接的인 經營參加가 許容되고 있다. 그리고 私企業은 私的利潤追求가 目的이고, 公經濟部門은 社會的利盆의 追求를 目的으로 活動하며, 私的利潤追求活動도 各種의 限定된 範圍에서 制限을 받고 있다.

이와같은 南韓의 資本主義體制의 基本的特徵을 ①所有形態와 ②經濟機構에 關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所有形態面의 特徵

南韓의 資本主義體制는 이른바 後進國型 混合經濟體制이므로, 資本主義的인 私的經濟部門과 社會主義的인 公的經濟部門이 併存한다. 따라서 資本所有·資本所得·資本形成등 어느것이나 公私兩部門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南韓의 混合經濟體制는 先進資本主義諸國의 그것보다 극히 낮은 段階이어서, 生産手段의 所有形態에 關해서도 私有·私營이 絶對的優位를 가지고 國民經濟의 基調를 이루며, 公有·公營은 극히 限定된 部門에 制限되어 公的部門의 比重이 先進資本主義諸國의 混合經濟體制에 比해서 아주 작다는데 特徵이 있다 할 것이다.

南韓의 公的部門은 鐵道·電力·專賣등의 基幹産業과 國策銀行등 限定된 部門에 그치고 있으며, 그 經營은 中央 및 地方自治團體의 公企業으로 構成된다.

그리고 이밖에 약간의 公私混合企業이 存在하여 私有·私營의 弊害를 완화하고 있다.

이와같이 南韓의 混合經濟體制에는 固定資産의 公有部門은 극히 限定되어 있지만, 總固定資本形成(總投資)중에서 公的部門의 資本構成 즉 公共投資의 比重은 상당히 높으며, 또 財産所有의 不平等을 완화하기 위해 農地改革法에 의한 農地所有上限制(3町步)등 私的 所有에 대한 制限도 存在하고 있다.

② 經濟機構面의 特徵

南韓의 經濟機構는 混合經濟體制下의 市場機構로서, 完全한 自由競爭의 市場機構도 아니고, 完全한 計劃機構도 아니다.

一般적으로 自由競爭市場이 基礎가 되지만, 競爭市場의 一部는 政府의 統制와 計劃에 의해 規制되는 「公式的計劃機構」를 갖고 있는 分權的市場經濟體制이다.

그리고 南韓의 計劃은 先進資本主義諸國중에서 가장 強한 計劃機構를 갖고 있는 프랑스의 計劃보다 더 強한 性格이며, 또 이른바 「公式計劃機構」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 特徵이 있다. 그것은 自由市場機構의 限界와 欠陥에 의한 貧富의 隔差, 勞使對立, 景氣變動 및 恐慌등의 各種 弊害를 克服하기 위한 一般的인 計劃化의 必要성과 아울러, 公共投資에 의한 急速한 工業化와 經濟開發을 自由市場機構에 란 말길 수 없는 低開發國 特有的 不可避한 事情으로, 民間部門에 더 強한 拘束力을 갖는 公式計劃機構를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러나 市場經濟機構를 基礎로 한 南韓의 經濟計劃은 소련型의 「命令的計劃」(imperative plan)이 아니고, 프랑스型보다 強한

性格의 誘導的 「指示的計劃」(indicative plan)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南韓의 經濟計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주요 特徵을 갖게 된다.

첫째, 南韓의 計劃은 短期的인 安定化의 諸目標보다도 오히려 長期的인 成長의 促進에 重點을 두고 經濟近代化를 推進하는 同時에, 部門別, 地域別, 産業別의 차별적인 成長패턴의 形成을 中心으로 하게 되며, 둘째, 南韓의 計劃은 모든 經濟活動을 直接的으로 統制하는 것이 아니라, 民間의 經濟活動을 적어도 政府計劃의 基本目標와 調和되도록 誘導하고 影響을 미치게 하는 勸告的, 指針的計劃으로 된다는 點이다.

따라서 南韓의 經濟計劃은 모든 經濟活動을 組織的이고 直接的으로 規制하는 것이 아니라 公共利益에 緊요한 不可避한 範圍內에서만 規制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南韓의 經濟計劃의 担当機構는 經濟企劃院으로서 計劃의 管理나 執行에 관한 統制, 調整의 責任을 진다. 그리고 計劃의 實際執行의 責任은 그 所管部이며, 計劃의 進捗과 実績評價 및 分析은 內閣企劃調整室이 担当하게 된다. (註)

(註: 大韓民國政府, 才二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 (1967-71)
1966, pp.122-124))

(2) 北韓의 共產主義體制

北韓은 高度의 中央集權的인 社會主義的計劃經濟體制를 取하고 있다. 따라서 그 基本的特徵으로는 ①生産手段의 全面的인 社會的所有와 ②過度한 中央集權的計劃經濟, 그리고 ③勞動黨 즉 共產黨에 의한 完全한 經濟權力的 独占的支配를 들 수 있다.

이와같이 北韓의 共產主義體制는 이른바 Marx-Lenin主義의 解釈 및 實踐에 있어서 가장 敎條主義的이며, 生産手段의 私的所有와 分權的인 市場機構을 全적으로 否定하고, 黨과 國家가 國民經濟의 全分野에 걸쳐서 완전한 独占力을 장악하여 組織的·直接的으로 計劃統制함으로써 中共 알바니아 및 몽고의 經濟體制와 더불어, 가장 硬直되고 過度한 中央集權的命令體制중의 하나라는데 그 基本的特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北韓의 共產主義體制가 中共등의 體制와 더불어, 共產主義 諸國중에서 社會主義的工業化에의 發展段階가 가장 낮은, 이른바 後進社會主義하는데 그 原因이 있다고 생각된다.

北韓의 共產主義體制는 高度의 社會主義的計劃經濟體制이기 때문에, 經濟活動의 主体는 政府 및 公的經濟機關이고, 그것을 管理運營하는 人間主体는 勞動者階級이며, 經濟活動의 目的은 社會主義 物質的, 文化的欲望을 最大로 滿足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北韓의 共產主義體制的 基本的特徵을 ①所有形態와 ②經濟機構의 面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所有形態面의 特徵

北韓은 生産手段의 「國有」나 「協同組合所有」(集團的所有), 즉 全面的인 社會主義的所有로 單一화된 所有形態를 基礎로 하고 있다. 當初에는 國有, 協同組合所有, 私有的 세 가지 形態가 있었으나, 1958年까지 私有가 完全히 廢止되어 現在에는 國有와 協同組合所有의 두 가지 形態뿐이다. 協同組合所有形態도 國家에 의한 資源의 不完全한 占奪을 結果하므로 궁극적으로는 全人民的所有形態인 國有로 單一化할 것을 目標로 定해 놓고 있다.

i) 國有部門으로는 地下資源을 비롯한 天然資源, 銀行, 鐵道通信, 航空, 國營農場, 主要商業, 山林, 河川 등이 있다.

ii) 協同組合所有部門으로는 協同農場, 商工業에 있어서의 一部 小規模의 生産協同組合 및 消費協同組合이 있다.

協同農場은 점점 그 規模를 擴大시켜 1958年 10月에 從前의 部落單位(平均 79戶)로부터 里單位(平均 275戶)로 統合시키고 이에 따라 1組合당 平均耕地面積은 133町步로부터 406町步로 擴大되었다.

生産協同組合은 점차 그 數가 줄어들고 있으며, 주로 手工業에 걸리고 있다. 그리고 消費協同組合은 주로 日用品商業에 걸리고 있는데 이것도 國營商業에 점차 吸收되고 있다.

1.2) 經濟機構面의 特徵

北韓은 單一의 「人民經濟計劃」을 作成하기로 規定하고 있으므로 計劃機構는 超中央集權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一切의 經濟資源과 用役은 自由市場機構가 全적으로 否定
되기 때문에 오직 中央當局의 計劃機構에 通해서 人爲적으로 配
分되고 調整되는 만큼 이는 經濟政策에 있어서 絶對적인 重要性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北韓의 計劃은 嚴格한 「命令的計劃」(imperative plan)
으로 共產圈諸國에서도 가장 強한 性格을 가진 點에 特徵이 있다
할 것이다.

이와같이 全面的이고도 超中央集權적인 計劃 및 統制로 말미암아
北韓에서는 消費者選擇의 自由는 勿論, 職業選擇이 自由등도 極도로
制限되게 된다.

北韓의 計劃担当機構로는 中央에 國家計劃委員會가 있으며, 그리고
地方에는 國家計劃委員會의 傘下機關으로서 都(直轄市), 市(區域),
郡計劃委員會가 있다. 註) 1964年 新設)

中央計劃機關의 機能은 ①經濟發展 및 長期經濟計劃案立案 ②內閣
의 各省과 委員會 및 地方計劃機關에 의해서 作成된 計劃案의 調
整과 結論의 提出 ③經濟計劃實施에 대한 監視 및 檢査, 그리고
重要한 是正策의 樹立, ④經濟計劃의 作成方法 및 提出形式의 指示
이다.

註: 社団法人・共產圈問題研究所刊, 「北韓總覽」(1968), p.315.

地方計劃機關은 國家計劃委員會의 地方出張所形態로 當該地域내의 生産資源을 綜合的이며 國家的인 見地에서 効果的으로 利用하기 위한 것이며, 이 地方計劃은 中央計劃機關과 地方人民委員會에 二重的으로 從屬되고 있다.

§ 2. 南·北兩体制의 接近可能性

(1) 兩体制의 接近可能性

南·北韓의 兩經濟体制은 多같이 低開發의 後進的 工業化段階에 對應하는 經濟体制라는 點에서 共通性이 있다. 따라서 先進工業化段階에 相應하는 資本主義体制나 社會主義体制와는 다른 그 發展段階의 格差에서 오는 各己의 特殊性들이 있으며, 이 特殊性으로 因해서 南·北韓의 兩体制은 先進資本主義体制와 先進社會主義体制사이에 있어서의 相互接近과는 달리, 그 接近에 있어서 現實的인 限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南·北韓의 兩体制의 相互接近에 있어서 가장 큰 制約要素로 생각되는 것은 北韓의 中央集權的인 社會主義的計劃經濟体制의 所謂 敎條主義的인 硬直性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南韓의 經濟体制은 低開發段階에 있는 後進資本主義体制이

지만, 그 自由開放體制의 性格으로 因해서, 資本主義體制의 內在的矛盾을 克服하기 爲해, 先進資本主義의 修正主義的要素를 導入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 自體內的 急速한 工業化社會의 建設을 自由市場機構에만 맡길 수 없는 低開發國 特有的 事情으로 因하여 計劃化의 原理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南韓의 經濟體制는 初期資本主義的狀態에서 先進資本主義의 要素를 받아들임으로써, 多分히 修正主義의 性格을 가진 전형적인 後進資本主義體制로 變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南韓의 資本主義體制는 이미 資本主義의 市場經濟의 原則을 維持하면서 社會主義的要素인 「公有化」와 「計劃 및 統制」原理를 받아들임으로써, 後進國型「混合經濟體制」로 修正되어 最適經濟體制에로 一步 接近해 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北韓의 社會主義體制는 Marx-Lenin主義의 解釋·實踐에 있어서 가장 教條主義的이며, 生産手段의 全面的 固有化에 의한 過度한 中央集權的計劃經濟體制로서, 中共·알바니아·몽고의 經濟體制와 더불어 共產國諸國에서도 가장 硬直的이며 완고한 保守的 性格을 가지고 있어, 아직도 體制變貌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北韓이 아직 社會主義的工業化에의 發展段階가 가장 낮은 後進社會主義段階에 있기 때문에, 經濟體制의 改革 以前의 소련이나 유고, 체코등 東歐諸國 一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經濟發展이 낮은 段階에서는 全體主義的獨裁에 의한 Stalin 型의 이른바 「壓制에 의한 成長」(growth by force) 방식이 아직도 經濟成長에 有效한 結

果를 가져오고 있어, 体制改革의 暴發의 限界点에 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는데 그 原因이 있는 것 같다.

사실, 北韓은 지금까지, 生産手段의 全面的 国有化와 過度한 中央集權의 計劃統制로 因한 浪費·非能率 등의 官僚主義의 病幣를 Cover하여 經濟成長의 沈滯·鈍化를 막기 위해 消費財犧牲, 勞動強制 등 國民生活의 全領域에 대한 組織的이고도 直接的인 統制를 加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經濟成長을 持續해 왔으며, 또 이것은 앞으로도 繼續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미 소련이나 유고 등 東歐諸國의 經濟改革의 經驗이 말해주듯이, 經濟成長과 함께 經濟發展의 段階가 높아지고, 經濟構造가 複雜하여질수록 資源配分上의 要請은 多樣化하게 되며, 硬直的 計劃과 執行体制 및 非合理的 價格制度는 이러한 要請에 適應能力을 喪失하게 되어 經濟成長과 發展을 阻害하는 障礙가 됨으로써, 마침내 体制改革에의 暴發点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

따라서 北韓의 經濟体制도 經濟가 發展함에 따라 Stalin 型의 「壓制에 의한 成長」方式은 여러가지 制度上의 欠陥이 露呈되어 浪費와 非能率의 限界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이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自体修正에 의한 經濟体制의 改革으로 「最適經濟体制」를 向해 接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北韓의 社會主義体制도 結局에는 自体修正이 不可避하게 되어 最適体制으로 接近하게 됨으로써, 南北韓의 兩經濟体制은 점차 相互 接近하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2) 兩體制接近의 長期的方向 및 展望

— 混合經濟체制的 福祉國家 —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南韓의 資本主義體制는 後進資本主義的 混合經濟體制로부터 先進資本主義的 混合經濟체制的 方向으로 점차 더욱 修正 進前해 갈 것이며, 北韓의 社會主義體制도 언젠가는 革新的인 體制修正이 不可避하게 되어, 過度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로 부터 現在의 유고型市場社會主義體制와 類似한 社會主義的 混合經濟체制的 方向으로 修正·進前해 감으로써, 結局에는 兩體制가 公私混合의 所有形態 市場과 計劃化의 有效한 結合, 政治的民主主義 및 産業民主主義, 그리고 自由와 平等, 따라서 個人主義와 全體主義의 有機的調和를 指向하는 이른바 多元的인 「混合經濟體制」의 方向으로 相互 接近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南韓의 資本主義的 混合經濟體制가 資本主義體制에 基礎하면서 社會主義的要素인 生産手段의 社會化와 計劃化내지 社會的統制를 導入하여 混合經濟化하고 있음에 反하여, 北韓의 將來의 社會主義的 混合經濟體制는 現在의 유고의 市場社會主義的 混合經濟體制와 같이 社會主義體制에 基礎하면서 資本主義的要素인 分權的인 市場經濟와 生産手段의 部分的인 私有化를 導入하여 混合經濟化하게 될 것으로 展望되는 것이다.

따라서 長期的인 趨勢의 展望에서는 南·北韓의 兩體制는 結局 逆의 方向으로 부터 混合經濟化하여 감으로써, 兩者間의 質的差異는 점차 解消되어 가고, 公的部門의 規模의 差異나 計劃 및 自由의 程

도의 差異등 이른바 J. Tinbergen 이 指摘한 바와 같이 量的差異
의 程度의 問題에 不過한 相互 類似한 最適體制로 더욱 接近해
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같은 相互의 量的인 差異를 어떻게 解決·接近하느냐
가 兩體制의 그 다음 段階의 課題로 될 것이며, 이러한 課題를
解決 接近하기 위해서 南北韓의 兩體制는 다같이 더욱 量的인 改
革과 修正을 擴大·深化시켜 나갈 것으로 展望된다.

南韓의 資本主義的混合經濟體制는 英國·스웨덴·노르웨이 등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이른바 民主社會主義내지 改良主義의 社會主義의 方向
으로 더욱 進前함으로써, 公有部門이 量的으로 더욱 增大되어 私經
濟部門의 方向을 左右할 수 있을 만큼 擴大될 것이고, 市場經濟機
能은 더욱 制限되어 計劃化가 더한층 增大될 것이며, 勞動者의 經
營參加 및 政策機關의 參加등에 의한 產業民主主義도 더욱 擴大
深化되리라고 展望된다. 그리고 한편 北韓의 社會主義的混合經濟體
制도 유고, 체코 등에서 豫見되는 바와 같이 自由社會主義내지 修正
社會主義의 方向으로 더욱 進前함으로써, 私有部門이 더 增大될 것
이고, 市場經濟가 더욱 強化되어 計劃이 指示的 誘導的 計劃으로 보
다 完化될 것이며, 또 勞動者의 直接經營參加와 自治管理에 의한
產業民主主義도 더욱 採擇深化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는 全
體主義的獨裁도 점차 完化되어 政治的 民主主義의 原理가 採擇·強
化되게 될 것으로 展望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한편에서는 南韓의 資本主義體制가 個人主義 및 自由放

任主義를 止揚하고 相關的個人主義내지 社會連帶主義 및 制限的인 統制主義를 原理로 하여 自由를 어느정도 制限하고 平等을 보다 더 擴大시킴으로써 自由와 平等의 調和에 基한 混合經濟体制의 福祉國家를 指向하여, 不斷히 前進해 갈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北韓의 社會主義體制가 또한, 平等主義내지 全體主義를 多少間에 制限止揚하고 個人의 尊嚴과 自由의 價値를 自覺하여 經濟面만이 아니라 政治·社會面에서 自由를 더욱더 復活 擴大시킴으로써, 自由와 平等, 즉 個人主義와 全體主義의 有機的調和에 基한 混合經濟体制의 福祉國家를 指向하여 不斷히 前進해 갈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多元的인 混合經濟体制의 福祉國家에의 指向이 將來에 있어서 南·北韓의 兩經濟体制의 修正·接近의 長期的方向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 窮極的으로는 兩体制의 統合에 의한 民族統一의 前進의 基礎가 될 것으로 展望되는 것이다.

그러나 長期的인 展望에서는 兩体制가 그러한 相互接近을 繼續하여 나갈 것이 必然的인 歸結이라고 생각되지만, 短期的인 面에서는 역시 그와 같은 兩体制의 修正·接近을 抑制·妨害하는 냉엄한 現實的制約 要因이 嚴存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南韓의 경우에는 所得 및 財産의 현저한 不平等, 勞使關係의 前近代的 非民主性등 비록 現實的인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自由主義體制의 自由·開放性의 論理的歸結로 因해서 漸進的·部分的體制改革 및 修正·接近에 있어서 北韓의 경우에 比해서는 窮極的인 障害要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反해서, 北韓의 경우에는 共產圈諸国中에서는 例外的으로 아직도 體制變貌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最適體制로의 修正・接近에 있어서 많은 現實的인 問題點을 보여주고 있는 實情이다.

南北韓의 兩體制의 相互接近에 있어서 가장 큰 制約要因으로 생각되는 것은 첫째로 北韓의 中央集權的인 社會主義的計劃經濟體制의 所謂 敎條主義的인 硬直性 및 保守性을 들 수 있다. 北韓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Marx-Lenin主義의 解釈 및 實踐에 있어서 中共, 알바니아 및 몽고와 더불어 가장 敎條主義的인 硬直性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 나라들이 例外없이 社會主義社會의 建設以前에 資本主義나 民主主義의 體驗을 전혀 거리지 못하고 前近代的인 傳統社會에서 바로 近代的인 社會主義的工業化社會로 移行했기 때문에 소련이나 유고 및 체코등의 東歐先進共產諸國과는 달리 그 體制에 있어서의 內在的矛盾과 工業化段階에 있어서의 後進性을 Cover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保守的인 이데올로기와 硬直된 經濟體制를 갖지 않을 수 없다는 現實的인 要請에 緣由하는 것 같다.

그리고 둘째의 制約要因으로 생각되는 것은 北韓體制의 一人獨裁中心의 過度한 政治優位性을 들 수 있다. 사실 共產圈諸國 一般이다. 그러하지만, 특히 北韓의 경우에는 經濟에 있어서는 물론, 政治・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이르기까지 一切의 權力을 共產黨이 獨占的으로 支配하는 所謂 「政治優位」의 國家이기때문에 中央集權的計劃管理體制는 共產黨의 政治權力과 密接한 結合을 하고 있

으며, 이 中央集權의 計劃體制의 崩壞에 의한 分權的體制에의 改革은 바로 共産黨의 獨裁權力을 弱化시키는 結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세계의 制約要因으로 생각되는 것은 北韓體制의 閉鎖性과 經濟生活의 後進性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은 지금까지 다른 共産國諸國중에서도 가장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대해 全面的이고도 直接的인 統制를 加하여 軍需工業 및 重工業政策에 主力함으로써, 輕工業 특히 消費財産業의 發達이 극히 低調하여 消費財犧牲을 비롯한 國民經濟生活의 全般的인 後進性 및 閉鎖性을 結果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體制의 改革은 역시 現實적으로 많은 冒險을 自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以上과 같은 要因들로 因해서 經濟的必要에 의해서만 北韓體制의 分權化를 期待한다는 것은 現實적으로 不可能하다고 할 것이며, 中央集權的體制의 根本的改革으로 因한 市場社會主義體制로의 修正·接近은 가까운 將來에는 전혀 期待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第五章 兩體制接近에의 結

—— 統一福祉社會에의 結 ——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비록 그 時間的인 先後關係의 差異는 있을지라도 「脫이데올로키」를 맞이하고 있는 現代의 經濟體制는 資本主義나 共產主義나 의 兩者択一的인 이데올로기의 偏見이나 도그마에서 벗어나, 相互 自體內的 矛盾을 修正하고 接近해 감으로써 多元的인 混合經濟體制的 「福祉國家」(Welfare state)를 指向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世界的, 歷史的趨勢라고 할 수 있다.

실로 福祉國家의 理念은 「自由, 平等 및 平和」라는 真正한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려는 것으로서, 政治的인 自由와 平等뿐만 아니라 經濟的인 自由와 平等 및 社會·文化的인 自由와 平等을 確保하고 더 나아가서 國際的인 自由와 平等 및 平和를 確保함으로써,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保障하고, 人間을 人間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福祉主義」(Welfarism)는 自由와 平等, 個人主義와 全體主義의 有機的調和를 期하기 위하여, 個人의 自由를 더 重視하여 全體의 平等을 輕視하는 資本主義體制는 勿論, 經濟的平等을 구실로 自由를 無視하는 共產主義體制를 다같이 超克·止揚하려는 새로운 思想·理念인 것이다. 이리하여 福祉主義는 資本主義體制에서 나타난 貧困, 失業 및 不平等등의 非人間的인 隸屬狀態에도 反對하는 同時에 「파시스트」獨裁 및 「프롤레타리아」獨裁를 비롯한 如何한 形態의

獨裁에도 反對하는 것이다. 反獨裁面에서는 民主主義의 原理를 끝까지 擁護하고, 反資本主義面에서는 完全雇傭達成, 經濟成長 및 生活水準의 向上, 社會保障을 비롯한 財產 및 所得의 平等分配. 그리고 나아가서 勞動者의 管理機能에의 參加에 의한 產業民主主義의 實現을 위해 適切한 計酬化를 실시함으로써 個人的 自由와 計酬化를 兩立시켜 自由와 平等의 調和를 期하고자 한다.

따라서 福祉國家의 理念은 모든 形態의 獨裁를 拒否하고 政治的 自由와 平等을 保障하기 위해 政治的民主主義를 指向하고, 財產과 所得 및 經濟的諸機會의 不平等을 追放하고 經濟的인 自由와 平等을 確保하기 위해서 混合經濟體制에 基한 經濟的民主主義를 指向하며 나아가서 工業化過程에서 疎外된 人間性을 回復하고 社會·文化的厚生을 公平하게 누리게 하여 社會·文化的인 自由와 平等을 確保하기 위해 教育普遍主義와 Humanism에 基礎한 文化的民主主義를 指向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民族을 單位로 하여 國際間의 平和를 保障하기 위하여 民族主義와 國際平和主義를 指向함으로써 실로 모든 면에서 民主主義의 廣範한 完成을 期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混合經濟體制制約 福祉國家의 建設을 指向하는 福祉主義는 資本主義體制와 共產主義體制를 다같이 超克·止揚하려는 새로운 理念으로서 兩者를 代替할 支配的體制로 그 基礎를 마련해가고 있으며, 그것은 南北韓의 兩體制의 發展的인 自己止揚으로 結果할 統一福祉社會建設에의 實踐의 理念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의 兩체제도 이데올로기絶對의 敎條主義的인 偏見이
나 dogma에서 벗어나 이러한 混合經濟체制的福祉國家의 理念을 指
向하여, 相互 自体内의 矛盾을 修正·克服함으로써, 統一福祉社會의
建設을 위해 果敢한 體制改革을 不斷히 繼續해 가야 할 것이다.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2020-2021

2021-2022

2022-2023

2023-2024

2024-2025

2025-2026